

## “재취업해도 ‘극한직업’…400명은 복귀만 기다려”

### 혹독한 ‘군산의夏’

#### ④ 그래도 ‘재기의 꿈’을 <끝>

“지금 일할 수 있는 곳은 ‘극한직업’밖에 없어요. 직업교육을 받고 재취업해도 중소기업 1~2년차 수준. 젊은 친구들이 주로 가는데 저희는 경력을 인정받지도 못해 갈 데가 없습니다.”

지난달 24일 전북 군산시 임피면에 위치한 삼영종합장비학원에서 지게차 실습을 받고 있는 한국지엠 군산공장 퇴직자 박모(51) 씨를 만났다. 23년간 한국지엠 군산공장 차체부에서 일했던 박 씨는 “당시 나를 포함한 1000명기량이 희망퇴직을 했다”며 “나머지 600명을 선별해 200명은 1년 정도 교육 후 부평공장으로 발령 났

30세 이상 실업자 교육기회 없어  
연차 많은 노동자는 갈 곳 전무  
재취업해도 中企 1~2년차 수준  
고령자 기술 배우기 쉽지 않고  
기러기 아빠’도 적지 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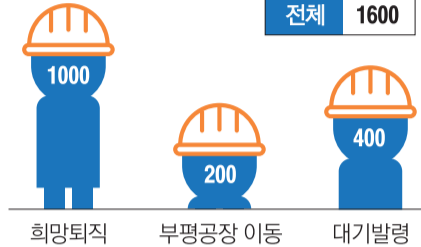
고, 400명은 기약 없는 대기상태”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관련기사 3면  
박 씨는 군산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에서 5월 7일부터 6월 28일까지 진행한 항공 지상조업사 2차 교육 훈련에 참가했다. 교육 수료 후 15명이 취업 예정이지만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는 “퇴직금으로 생활하고 고용센터에서 협력업체 동료들과 교육을 받는데도 취업이 안 된다”며 “군산 경기

자체가 힘들다 보니 다들 타 지역으로 떠나 ‘기러기 아빠’가 됐다”고 토로했다.

그나마 박 씨는 정부 지원으로 직업교육을 받고 있지만, 미래가 밝지 않다. 배운 기술로 취업하더라도 처우가 마땅찮기 때문이다. 박 씨는 “지상조업사로 취업하면 수습기간 3개월 이후 정식 채용되는데 임금이나 복지가 상당히 낮다”며 “그 분야 취업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 달에 280만 원 정도 손에 쥐는데 방세 35만 원 내고, 교통비·생활비 떼고 나면 남는 건 200만 원 안팎”이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박 씨는 한국지엠 공장 부지에 들어올 전기차 생산 라인에 기대를 갖고 있다. 그는 “광주로 갔는데, 경력을 인정해 주긴 커녕 최저시급만 준다고 해서 돌아왔다”며 “그래도 여기서 23년 있었는데 전기차에 희망 갖고 있다. 그나마 거기서 채용해주

한국지엠 군산공장 노동자 현황  
(단위: 명)



면 5~6년이라도 다녀볼 계획”이라며 무거운 표정을 지었다.

박 씨처럼 오랫동안 공장을 다닌 노동자들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현대중공업에서 2년간 근무한 장모(27) 씨는 “최근 교육받으면서 배터리 업체 취업을 알아보고 있다”면서 “연차가 낮아 다행히 재교육 기회를 얻었지만, 연차 많은 고령자들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슷한 업종으로 취업하거나 일자리를 못 찾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했다. 실제로 군산 고용위기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전기차 관련 교육에는 ‘만 30세’라는 나이 제한이 걸려 있다.

한국지엠의 2차 협력업체 BTX에 소속돼 일하던 조모(36) 씨도 산단 내 여러 공장을 전전하며 계약직으로 일했다. 조 씨는 “그나마 정직원들은 위로금이라도 받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다”며 고개를 내저었다. 그는 “한국지엠이 빠지고 A/S 부품이 소진된 이후엔 일이 없어 잠깐씩 막일을 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다”며 “동료들은 뽕뽕이 흩어져 연락도 닿지 않는다”고 했다.

군산 = 김보름 기자 fullmoon@  
김벼리 기자 kimstar1215@

<소프트뱅크 회장>

## 文대통령 만난 손정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AI”

“세계가 한국AI 투자하도록 도울 것  
한국도 세계 1등 기업에 투자해야”  
손회장, 이재용·정의선 등과 만난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4일 “세계가 한국의 인공지능에 투자하도록 돕겠다”며 “한국도 세계 1등 기업에 투자해라. 이것이 한국이 인공지능 1등 국가가 되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앞으로 한국이 집중해야 할 것은 첫째도 인공지능, 둘째도 인공지능, 셋째도 인공지능”이라며 이같이 조언했다.

손 회장은 “구체적인 정책과 전략은 다른 사람들이 해도 되지만 대통령은 비전을 갖고 방향을 잡아야 한다. AI는 인류 역사상 최대 수준의 혁명을 불러올 것”이라며 교육, 정책, 투자, 예산 등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전폭적 육성을 제안했다.

손 회장은 “젊은 기업가들은 열정과 아이디어가 있지만 자금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유니콘이 탄생할 수 있도록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렇게 투자된 기업은 매출이 늘고, 이는 일자리를 창출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대기업은 자급력이 있어 스스로 투자가 가능하지만 혁신벤처 창업가들은 자금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특히 젊은 창업가들에게 투자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손 회장에게 AI 전문인력 양성 분야와 소프트뱅크가 갖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용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손 회장은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회답했다.

문 대통령은 “2012년 소프트뱅크 본사를 방문해 손 회장의 아시아슈퍼그리드 구상을 듣고 큰 영감을 받았던 것이 동북아 슈퍼그리드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며 “동북아 철도 공동체가 동북아 에너지 공동체로, 그리고 동북아 경제 공동체로, 다자안보 공동체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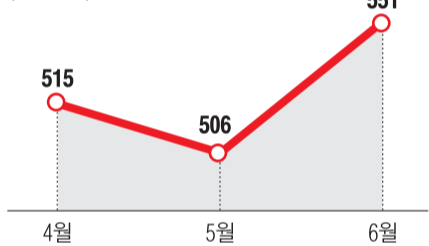
손 회장은 이날 저녁 삼정동 구박물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구광모 LG 회장,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와 만났다.

신동민 기자 lawsdm@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 본관에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일평균 경매 진행건수 추이  
(단위: 건)



## 부동산 경매 ‘붐물’ 경기침체·규제 여파

하루 551건 진행…3년새 최대

부동산 경매시장에 큰 장이 섰다. 경기 침체와 부동산 규제 여파로 경매 매물이 넘쳐나고 있다.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진행된 일평균 부동산 경매 진행건수는 551건으로 2016년 5월(607건) 이후 가장 많았다.

2015년 2월까지 700건을 넘었던 일평균 진행건수는 서서히 줄다가 2016년 7월 이후부터는 매월 400건대에 머물렀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3월만 제외하고는 매월 일평균 진행건수가 500건 이상을 기록 중이다. 지난해 단 두 차례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확연한 증가세다.

장근석 지지옥션 팀장은 “역대 최대의 부동산 규제를 견디지 못한 겹투자자 소유의 아파트들이 속속 경매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집값 하락 우려로 수요자들이 경매시장에 적극 뛰어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낙찰률(경매 진행건수 대비 낙찰건수)은 32.6%로 2013년 12월(3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윤재호 메트로컨설팅 대표는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침체 국면에 있는 만큼 물자 마 식 투자(입찰)는 삼가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신철 기자 camus16@

## EU, 결국 ‘ILO 협약비준’ 전문가 패널 소집 통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4일 우리 정부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이 부족하다며 분쟁해결 절차 마지막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5월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비준 절차를 진행해 왔으나, EU는 국회에서의 처리 여부가 정치적으로 불확실하다

### “韓 정부 비준 노력 부족”…패널 2개월내 구성해야

고 판단해 정부 간 협의의 다음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U는 한국-EU 자유무역협정(FTA)이 2011년 7월 발효되면서 우리 정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12

월엔 한국이 한-EU FTA 제13장(무역과 지속가능 발전 관련)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FTA 사상 최초로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첫 단계인 정부 간 협의는 올해 3월 끝났다.

전문가 패널이 소집되면 한국의 한-EU FTA 위반 여부를 본격적으로 따지게 된다. EU의 요청에 따라 앞으로 2개월 안에 전문가 패널(3명)이 구성되면 전문가 패널은 90일간 당사국 정부, 관련 국제기구, 시민 사회 자문단 등의 의견을 듣고 보고서를 작성해 양측 정부에 제출한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늦추면 양국 간 자유로운 무역 확대에 장애물이 될 소지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5면에 계속  
세종=박은평 기자 pepe@

# “반도체 소재 공급망 무너져”... 국제사회 일제히 반발

## 日 기업조차 우려 목소리

韓패널 공급받는 소니·파나소닉 TV생산 중단에 상품 고갈 가능성  
JSR·스텔라케미파 주가 5%↓  
애플에 제품 공급 日기업도 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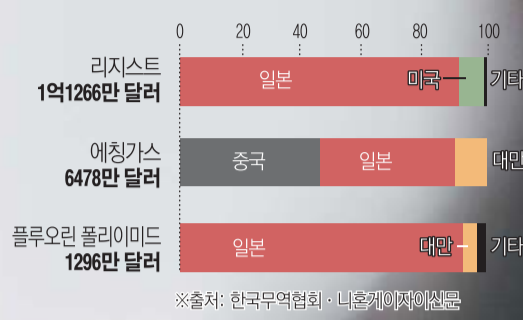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로 글로벌 서플라이체인(공급망)이 무너져 산업계가 동반 침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어지럽게 뒤엎힌 반도체 공급망을 해결하기 위해 우회 수출이나 일본 정부에 대한 반발 등 어떻게든 해법을 찾으려는 '난마불사(亂麻不死)'의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시행한 첫날인 4일 한일 기업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공급망이 무너질 수 있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특히, 한국 기업에 이어 일본 내부에서도 불만소리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기 시작했다. 일본 경제산업성 발표가 있던 1일 수출규제 관련 업체인 JSR와 스텔라케미파 주가는 약 5% 급락했고 다른 업체들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며, 파급효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일본 수출규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의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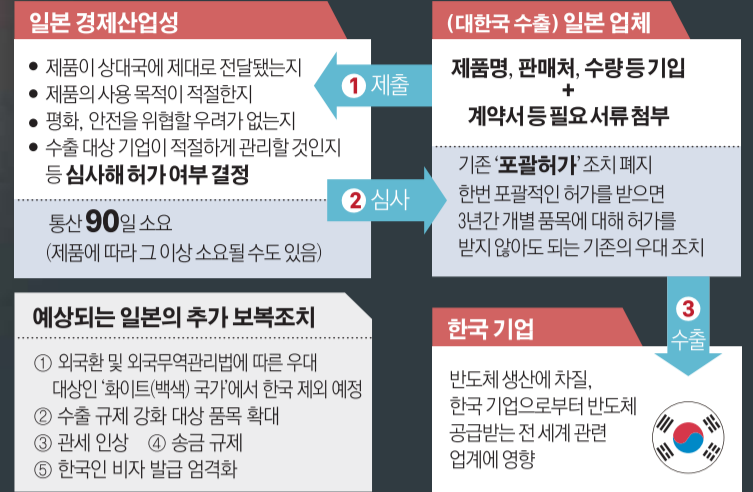
(단위 : %, 금액은 1~5월 전체 수입액)



※출처: 한국무역협회·니혼케이자이신문

## 가다로워지는 일본 규제 반도체 소재 품목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튬, 에칭가스 (고순도불화수소)



그동안 일본 소재 기업들의 불만이 새어나오다가 세트업체인 소니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소니와 파나소닉은 한국 기업들로부터 TV용 유기EL 패널을 공급받고 있다. 삼성과 LG 등 제조사가 소재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유기EL 패널 생산이 정체되면, 일본 세트업체 역시 부품 조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아사히신문과 니혼케이자이신문 등은 “소니는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어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TV 생산

을 못 해 상품이 고갈할 가능성을 포함해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은 우리나라와 직거래하는 일본 기업뿐만 아니라 제3 국가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애플의 경우 아이폰 일부 제품에 삼성전자의 유기EL 패널을 탑재하고 있다. 이번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로 아이폰의 생산이 늦어지면, 애플에 제품을 공급하는 일본 기업들도 영향을 받게 된다. 일본 소재 기업의 1차 피해에 이어 2차 간접 피해로 이어지는 것이

이 때문에 일본 내부의 상당한 반발과 함께 일본 기업들이 우회 수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다.

산케이신문은 무코야마 히데히코 일본 종합연구소 수석주임연구원의 말을 빌려 “한국의 반도체 메모리 수출치는 중국, 홍콩이 80%를 차지하고 있고 일본은 10% 수준”이라며 “하지만 중국 생산에 영향이 미친다면 중국에 진출해 있는 일본 기업에도 영향이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업계는 일본의 보복 조치가 삼성과 LG의

고객사인 애플과 구글, 그리고 화웨이, 샤오미, 오포(OPPO), 비보(vivo) 등 기업에도 연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코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라도 국제사회 차원의 공조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씨티그룹의 아케다 아쓰시 애널리스트는 “반도체 공급망이 복잡해 1개의 물자 조달이 지연되면 생산 전체가 정지될 수 있다. 또 고품질의 소재는 한 번 채용되면 타사 제품으로의 전환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권태성 기자 tskwon@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4일 서울 중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통제 관련 관계기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전면전 피한 정부... “日, 양자협의를 조속히 응해야”

### 수입 의존 높은 부품 국산화 추진靑, NSC 열어 정치적 보복 규정

일본이 반도체 등 제조에 필요한 핵심품목 3개의 한국 수출을 제한하기로 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지원하는 한편, 일본과 양자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의 조치를 경제 보복으로 규정하고 ‘맞보복’ 가능성까지 시사했으나,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선부터 맞대응으로 사태가 전면전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4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할 뒤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서울에서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일본이 책임 있는 전략물자 국제 수출 통제의 당사국이라면 한국이 기제안한 양

자협의를 조속히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규범에 반하고 과거 일본의 주장 및 발언과도 배치되며 세계 경제 발전을 위협하는 일본의 수출통제 강화조치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일본 경제통상성은 4일부터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튬,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한다고 1일 발표했다. 정부는 발표 직후부터 일본 정부에 양자협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본 측이 경제제재 보복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다양한 대응 조치, 일본에 상응할 수 있는 조치를 정부가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호 경제제재 등 맞대응에 대해서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준비하겠지만,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유 본부장 주재로 열린 관계기관

회의와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관계 차관회의에선 맞대응까진 논의되지 않았다. 차관회의에서 정부는 핵심기술 개발 및 사업화 실증 등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핵심부품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연내 추진이 가능한 사업들이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이미 기술이 확보된 품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양산이 가능하도록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가 일본의 경제제재에 공격적인 대응을 피한 건 이를 통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가 상호제재로 대응하면, 일본은 더 공격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우리 정부가 맞대응을 한다고 하면 일본에도 그만큼 타격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산업 구조나 교역 패턴을 보면 그런 품목을 찾기 어렵다”며 “이번 사태는 확전될수록 우리에 불리하다. 통상·외교적으로 원만하게 관리하는 게 국익에 더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세종=박종화 기자 pbell@

## 수출 규제 빨난 국내 소비자 ‘일본제품 불매’ 확산 움직임

일본 정부가 4일 반도체 관련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 규제를 시작한 가운데 이를 접한 국내 소비자들도 일본 브랜드에 대한 불매 운동 확산 조짐이 일고 있다. 이번 조치가 한일 무역전쟁으로 비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일본계 지분이 높은 소비자들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독도 영유권 분쟁 등 일본 관련 외교 이슈 때마다 흥을 치렀던 롯데아사히주류가 대표적이다. 롯데와 일본 아사히의 합작법인인 롯데아사히주류는 설립 당시에는 롯데 지분이 80% 이상이었지만 롯데

롯데아사히, 체험행사 앞두고 불똥 ‘韓거래사 교체’ 유니클로도 촉각

를 아사히에 넘겼다. 롯데아사히주류는 공교롭게도 당장 5일부터 아사히 맥주를 맛보는 체험 행사가 예정돼 있어 난감한 상황이다. 롯데아사히주류는 5일부터 8월 4일까지 서울 성수동의 한 바에서 생맥주 전문가가 제공하는 아사히 수퍼드라이와 요리를 먹으며 즐기는 ‘아사히 수퍼드라이 드래프트 마스터’ 팝업 행사를 연다. 또 12일부터는 8월 11일까지는 서울 야경을 잘 볼 수 있는 용산의 한 고층 공간에서 ‘아사히 수퍼드라이 프리미엄 라운지’ 체험 행사도 예정돼 있다. 롯데아사히주류 관계자는 “아무래도 이슈가 되면서 당장 내일 바를 오픈할지 말지 논의한 건 사실”이라며 “일단은 예정대로 오픈하기로 했다”고 말해 불매운동 움직임이 행사 운영에 부담을 줬음을 시사했다.

패션 SPA 브랜드 유니클로 역시

최근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불똥이 튀었다. 최근 들어 유니클로는 수년간 연간 1억 달러 상당의 대량 거래를 해 오던 국내 벤더사 세아상영과 거래를 끊었는데, 이 점 역시 외교 분쟁으로 인한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더욱이 유니클로는 지난해 국내에서 1조3732억 원의 매출을 기록, 4년 연속 매출 1조 원을 달성한 기업으로, 네티즌들 사이에 대표적인 불매 대상 브랜드로 꼽히고 있다.

네티즌들이 꼽은 또 다른 불매운동 대상 일본 브랜드로는 ‘빠가 썩 비트’, ‘휴족시간’ 등의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라이온코리아(구 CJ라이온)가 있다. 이 회사

역시 일본법인인 ‘라이온 코퍼레이션(LION CORPORATION)’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 밖에도 스포츠용품 브랜드 테상트, 미즈노를 비롯해 기린 맥주, 포카리스웨트, 남성 화장품 브랜드 우르오스 등도 국내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 조짐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한편 생활용품 유통기업 다이소는 일본 다이소와 이름만 동일할 뿐, 지분 관계가 없음에도 불매 대상에 올라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일본에 정통한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일본의 상의원 선거인 참의원 선거가 펼쳐지는 21일 이후로 조치가 완화될 수 있다. 아베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는 일본 대내 정치를 겨냥하고 여론 형성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본 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불매 운동으로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 “현대중·GM 떠났는데 살것소?”... “그라도 살아야제”

대기업 빠진 산단, 전기차 공장 전환... 새만금, 태양광·풍력 단지로 정부 신재생에너지 사업 유치 호재... “자리잡기 전 망할라” 회의론도

## 조용히 읊조리는 '희망가'

“지금 전기차 충전 한 번에 400km 굴러가요. 서울에서 부산도 못가. 동력원으로 쓰이는 2차전지의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그래요.”

지난달 19일 전북 군산시 군장대학교 부속건물 한편에서 강의가 한창이었다. 계단형으로 층진 공간에는 20여 명이 수업을 듣고 있었다. 모두 군산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의 ‘전기차 2차전지 자동화장비 기술인력양성과정’ 수강생들이다. 이 과정에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부평공장 물류센터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갖 대학을 졸업한 사회초년생들이었다. 이날 수업을 들었던 박도(28) 씨는 “작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 자리를 알아보고 있었다며” “전기차 관련 기술을 배워두면 나중에 취업하기 유리할 것 같아 프로그램을 신청해 4주 전부터 교육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와 지엠이 버린 땅’이지만, 군산에서도 최근 희망의 멜로디가 울리고 있다. 한국지엠이 떠난 국가산업단지 공장은 전기차 생산 기지로 탈바꿈할 준비가 한창이고, 새만금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군산의 미래를 여전히 비관적으로 보는 시선도 공존한다.

◇지엠공장 매각·신재생에너지 육성... 부활의 몸짓 = “(군산이) 지금 완전 죽음의 도시잖아. 그래도 좀 살아났어. 살아났어.”

군산 오식도동에서 즉발집을 운영하고 있는 오모(50) 씨는 최근 오식도동에서 부는 변화의 분위기를 체감한다. 작년 지엠이 철수한 뒤 15만 원 정도였던 하루 매

출액이 요새 25만 원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많아야 하루 1~2번 나가던 배달도 몇 달 전부터 7~8번까지 늘었다. 오모 씨는 “예전에는 여기저기서 ‘군산 뜰까’ 하는 푸념이 들렸다”며 “요새 군산에 대한 전망이 나아지면서 사람도 많아지고 마을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말했다.

분위기 전환은 무엇보다 한국지엠 공장에서도 다시 기계소리가 들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한몫한다. 3월 한국지엠의 군산공장이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들로 구성된 엠에스오토텍 컨소시엄에 팔린 것이다. 코스닥 상장기업 엠에스오토텍은 현대자동차의 1차 협력사로 차체 부품을 제작하고 있다. 앞으로 군산에서 국내 부품업체 3~4곳과 함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대한 기대도 여전히 높다. 2017년 7월 28일 최길선 당시 현대중공업 회장은 조선소 폐쇄 이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2년 뒤인 2019년에 조선소를 재가동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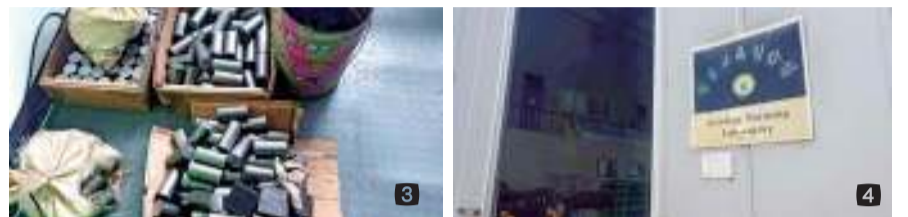
이와 함께 정부가 군산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유치하려는 움직임도 호재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북 새만금 일대에 4GW 규모 초대형 태양광·풍력발전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기차 생산, 일리아 2021년인데... “그전에 다 쓰러질 수도” = 이와 달리 군산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내다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특히 정부가 새만금산업단지나 그 주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지만, 기존의 국가산업단지는 여기서 소외되고 있다는 불평이 나온다.

과거 한국지엠 군산공장에 납품했던 한



1 박남균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장이 직업교육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 3 군산시 군장대학교 앞 부속건물 교실에 비치된 기계장비와 부속물. 4 군장대학교 앞 항공교육실습실. 김바리 기자 kimstar1215@

협력사 관계자는 “전기차 생산라인이 들어온다고는 하지만 빨리야 2021년”이라며 “지금 상태로만 그 전에 협력사들도 다 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 창출도 많아 900명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 한국지엠 노동자 수를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대중공업 재가동도 쉽지 않다는 것이 산단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은 지금 대조양 인수 등 당장 해결해야 하는 현안이 산적해 있어 군산조선소를 신경쓰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렇다고 공장을 매각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가 유치된다고 해도, 지역경제에 얼마나 긍정적 효과가 크게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굴뚝 산업’, 즉 노동집약적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 창출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는 우려다.

군산 = 김바리 기자 kimstar1215@ 김보름 기자 fullmoon@

## 인터뷰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 “새만금 산단, 전기차 생산기지로 ‘불 꺼지지 않는 군산’ 재현할 것”

“군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기업 유치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이투데이와 만나 새만금 산단 개발이 군산 경제를 살릴 대안이라며 큰 기대감을 표시했다.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 대상 공장용지는 20만 평에 17개 기업(28만 평)이 신청할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 이달 말까지 15만 평에 들어올 입주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전북 군산시를 지역구로 둔 재선 국회의원이다. 군산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산업이었던 군산공장과 조선소가 문을 닫고, 새만금 산업단지 역시 지난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해제돼 지역경제 사정은 악화됐다.

김 의원은 “최근 한국지엠 군산공장 매각 완료 등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에 한 줄기 희망이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공장 부지는 이달부터 전기차 생산기지로 탈바꿈된다. 군산공장을 인수한 명신은 2021년까지 900여 명의 개발·생산인력을 고용해 연 5만 대의 전기차 생산에 나설 계획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9월까지 향후 계획에 대한 로드맵을 내놓겠다고 알려졌다.

그럼에도 지역민들이 곧바로 변화를 체감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전기자동차 공장이 들어오면 관련 협력업체가 같이 오겠지만 예전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이쪽에서 망가진 기업의 고용 위기나 실업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하기엔 시차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 산단에 기업을 유치해 과거 군산 산단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그는 장기입대용지를 조성해 분양가의 연 1%만 지불하면 100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2020년까지 30만3000평(100만㎡)의 땅에 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관련 기업이 입주하고 관련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 의원은 “장기입대용지 수요는 총 61만 평(27개 사)이며 이 중 42만 평(16개 사)은 투자협약이 이미 체결됐고 이 중 5만 6000평(6개 사)은 입주계약을 체결했다”며 “나머지 19만 평(11개 사)은 올해 안에 투자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산 = 김보름 기자 fullmoon@ 김바리 기자 kimstar1215@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집안을 하루같이 열심히 일하는 파장남도~



오늘도 웃음으로 손님을 대 가게 사장님도~



피곤도 없이 하루 종일 일하는 전업주부도~




## 투자는 누구나 하는 거야 그래야 하는 시대니까

100세 시대, 평생 직장이 없는 시대  
60세에 은퇴해도, 직장이 없어도  
누구나 잘 살아야 하니까

이제 투자는 누구나 하는 겁니다  
NH투자증권이 함께 하겠습니다

투자, 문화가 되다  
**NH투자증권**

한국금융투자협회 신사업 제5-02018(2019-06-03~2020-08-03)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저축보통예에 따른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경상수지 흑자였지만 상품수지는 6년 만에 최악

## 한은 '5월 국제수지 잠정치'

국제수지가 7년 만의 적자를 한 달 만에 극복하면서 흑자로 돌아섰다. 다만 반도체 등 수출 부진이 계속되면서 경상수지 흑자 폭은 전년 동월 대비 반 토막 났다. 이에 따라 올 경상수지 흑자 전망치 665억 달러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경상수지는 49억5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전년 동월(84억3000만 달러)과 비교해서는 흑자폭이 41.3% 감소했다. 서비스수지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가 상당폭 개선된 반면 상품수지 흑자폭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직전월에는 6억6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었다.

49.5억 달러 흑자 전환했지만... 수출 부진에 흑자폭 '반토막' 반도체 29.2% ↓ ... 서비스수지 적자폭 20.9억 달러→9억 달러

부문별로 보면 상품수지 흑자규모는 53억9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107억9000만 달러) 대비 50.0% 감소했다. 이는 2012년 5월(-620.3%) 이후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또 7개월 연속 감소세다.

수출은 480억3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538억5000만 달러보다 10.8% 줄었다. 반면 수입은 426억4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430억6000만 달러 대비 1.0% 감소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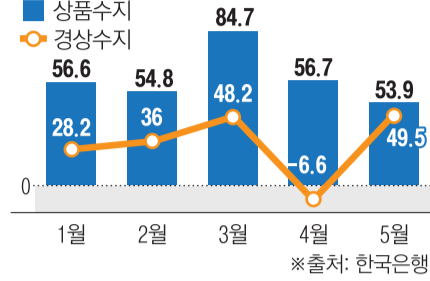
통관기준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9.5%

줄어든 458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선박(전년 동월 대비 46.8%)과 가전제품(24.0%)은 증가한 반면, 반도체(-29.2%), 화장품(-11.1%) 등을 중심으로 줄었다. 수입은 1.8% 감소한 436억4000만 달러를 보였다. 자본재(0.5%)와 소비재(5.0%) 수입은 증가한 반면, 원유(-10.8%)와 화장품(-8.6%) 등을 중심으로 한 원자재(-5.4%) 수입은 줄었다.

양호석 한은 국제수지팀장은 "전달 계절적 요인에 의해 적자를 보였던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섰다. 상당폭 흑자를 기록하면

## 경상수지·상품수지 추이

(단위: 억 달러, 잠정치, 2019년 기준)



서 일각의 우려를 잠재우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다만 흑자폭은 크게 줄었다. 세계 교역량 부진과 반도체 단가 하락이 계속된다, 해외 생산이 줄면서 수출이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수지 적자규모는 전년 동월 20억

9000만 달러에서 9억 달러로 축소됐다. 이는 2016년 12월(-6억6000만 달러) 이후 최소 적자폭이다. 중국인(유커)과 일본인을 중심으로 관광객이 늘어났다.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는 35억9000만 달러를 기록해 5개월 연속 유입세를 보였다. 채권투자를 의미하는 부채증권 투자가 59억 달러로 한 달 만에 유입세로 돌아선 반면, 주식은 23억1000만 달러를 빼 5개월 만에 유출을 기록했다.

양 팀장은 "미중 무역갈등 우려에 따른 투자심리 악화에다 글로벌 주식시장이 좋지 않았다. 반면 원화약세에 따른 저가 매수세 영향으로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증가했다"고 말했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4일 서울 중구 대한상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기업인 간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 홍남기 "300인 미만 기업 52시간제 도입 보완책 마련"

### 박용만 상의 회장 "혁신 성장 위해 파격적 조치 필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주 52시간 근무제의 확대 적용에 앞서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혁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홍 부총리는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에서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여러 목소리가 나온다"며 "국민의 기대와 달랐던 부분은 현장의 목소리 등을 고려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이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되게 할 것"이라며 "주 52시간 근무제는 내년부터 50~299인 이하 중소기업도 적용되는데 실태조사와 기업 준비 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토대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세계 인센티브 등 경제활성화에 방점을 찍은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특히 세법 개정안-예산안 등 후속 정책에 기업의 애로사항을 반영하고 규제 샌드박스 100건을 조기 창출하는 등 경영 현장의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정부가 설비투자 지원과 내수 회복 전반에 총력을 기울이고, 기업들이 이에 맞춰 투자를 실행하는 등 보조

를 맞춘다면 우리 경제는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기업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여러 고민들을 엿볼 수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 회장은 그러면서 혁신 성장에 대한 좀 더 파격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 회장은 "규제 샌드박스의 경우 개별 규제들에 대해 정부에서 일일이 심사해 승인하는 '관문 심사' 방식 대신, 심사 이전 단계부터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보완하고 여러 부처에 걸친 복합 사업 모델에 대해서도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 "올여름 폭염 없다"... 전력공급 여력 작년보다 줄듯

올여름 전력공급 여력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여름 전력피크(전력 수요가 최대가 되는 시기) 기준 전력 공급 능력이 983만kW에 이를 것으로 4일 전망했다. 1억kW가 넘는 전력을 확보했던 지난해 여름보다 공급 여력이 200만kW가량 줄어들었다. 고장이나 정비, 연료 전환 등으로 가동을 멈춘 발전소가 많아서다. 원자력 발전소는 올여름 최

대 7기가 가동을 멈출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전력 수요 역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더위가 지난해보다 덜할 것이라는 기상 예보 때문이다. 산업부는 올여름이 평년 수준으로 된다면 8950만kW, 폭염이 온다면 9130만kW까지 전력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여름 최대 전력 수요는 9248만kW였다. 산업부는 예비력(전력 공급 능력과 최

대 전력 수요의 차)은 평년 기준으로는 883만kW, 흑서 기준으로는 703만kW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정도면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게 산업부의 판단이다. 예비력이 400만kW 밑으로 떨어지면 전력수급 경보 '준비' 단계에 들어서는데 이보다 300만kW를 더 확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업부는 만일에 대비해 시운전 발전기, 석탄발전소 출력 상향 등을 통해 904만kW 규모의 추가 예비자원도 확보하기로 했다. 세종·박종화 기자 pbell@

## 정부 성장률 전망 비웃듯 한 달 만에 또 내린 해외IB

씨티·GS 2.1%, JP모건 2.2% "소비 약세에 투자심리 악화"

주요 해외투자은행(IB)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이 평균 2.2%까지 떨어졌다. 정부가 3일 올해 성장률 전망을 0.2%P(포인트) 하향한 2.4~2.5%로 낮췄지만 시장의 반응은 더 싸늘하다.

4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씨티(Citi)와 골드만삭스(GS), JP모건이 한국 성장률을 한 달 만에 또 내렸다. 씨티는 2.4%에서 2.1%로 하향 조정하면서 정부의 복리후생 증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비 약세가 지속되고 있고 무역 긴장 지속으로 투자심리도 악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GS는 2.3%에서 2.1%로 낮추면서 수출 둔화 영향으로 2분기 경기 반등 폭이 예상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JP모건은 2.3%에서 2.2%로 0.1%P 낮췄다.

이에 따라 주요 9개 해외 IB의 한국 성장률 전망 평균도 한 달 만에 0.1%P 하락해 2.2%로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IB 중에서 HSBC가 2.6%로 가장 높았고

	5월 말	6월 말
바클레이즈	2.2%	2.2%
뱅크오브아메리카	2.2%	2.2%
씨티	2.4%	2.1%
크레디트스위스	2.4%	2.4%
골드만삭스	2.3%	2.1%
JP모건	2.3%	2.2%
HSBC	2.6%	2.6%
노무라	1.8%	1.8%
UBS	2.3%	2.3%
평균	2.3%	2.2%

노무라는 1.8%로 가장 낮았다. HSBC는 지난 5월 말 발간한 보고서에서 올해 2분기에 경제 성장세가 살아나고 하반기에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노무라는 대외수요 약세가 성장에 부담을 주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이 수출 둔화 등 경기 둔화 압력을 상쇄하기엔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9개 해외 IB 성장률 전망 평균은 지난해 말만 해도 2.6%였지만,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수출 부진이 계속되자 성장률 전망을 0.4%P 낮췄다.

세종·곽도흔 기자 soqood@

## 갑질 논란 애플, 공정위에 '자진 시정' 요청

### 통신 3사에 광고비 등 떠넘긴 혐의

통신 3사에 갑질을 한 혐의로 심의를 받던 애플코리아(애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 시정을 요청했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은 자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에 대한 심의 동의의결을 공정위에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 스스로 거래질서 개선과 소비자 피해 구제 등 불공정 거래 시정 방안을 제안하는 제도다. 공정위가 동의의결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 판단 없이 심의 사건을 신속히 종결할 수 있다.

애플은 광고비와 무상수리 비용 등을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 떠넘긴 혐의로 공정위 심의를 받아왔다. 2016년 조사에 들어간 공정위는 지난해 말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넘겼다. 공정위 사무처는 애플이 통신 3사에 제품 구매와 이익 제공을 강요하고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등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내부 규

정상 애플의 구체적인 시정 방안과 관련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면서도 "거래질서를 회복하는 방안과 소비자나 다른 사업자의 피해 예방 및 구제 방안과 이를 위한 기금이나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라고 말했다.

동의의결이 받아들여지면 애플이 제시한 시정 방안이 관련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법이 규정하는 제재와 균형이 맞아야 하고 소비자 보호, 경쟁-거래질서 회복을 위한 적절성도 갖춰야 한다. 행위의 중대성, 증거의 명백성, 공익 부합성, 시간상 위급성 등도 동의의결에 반영된다.

공정위는 심의를 중단하고 2주 안에 전원회의를 열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전원회의에서 동의의결 개시를 불허하면 심의는 재개된다.

애플은 동의의결 신청이 '백기투항'으로 비치자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안에 관해 취한 접근 방식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어떠한 법률위반도 하지 않은 애플은 이에 대한 강한 반대의 의사를 밝힌다"는 입장을 냈다. 세종·박종화 기자 pbell@

# ‘연금 대신 일시금’ 퇴직 공무원, 기초연금 사각지대

### 소득·재산 관계없이 기초연금 못 받아... “법 개정 논의”

연금 대신 일시금을 택한 퇴직 공무원들이 기초연금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뚜렷한 대안도 없다. 이들과 같은 조건에서 연금을 택한 퇴직 공무원들과 형평성을 맞춰야 해사다.

4일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퇴직 공무원 3만504명 중 2048명(6.7%)이 연금 대신 일시금을 택했다. 퇴직연금일시금 선택자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직후였던 1998년 1만8893명으로 정점을 찍고 감소하다가 2011년(1260명) 이후 다시 증가세다. 1982년부터 지난해까지 15만5914명에 달한다.

일시금 지급액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과 별도의 방식으로 계산된다. 이

산식에 따른 금액이 기여금(납입 보험료+정부 기여금) 합계에 민법상 이자를 가산한 금액보다 적으면 후자의 방식으로 지급액이 정해진다. 이때 기여금 대비 지급액 비율인 수익비는 1.10배를 넘기 어렵다. 퇴직연금을 20년간 받았을 때 수익비가 1.48배인 점을 고려하면, 일시금을 택함으로써 지급액이 3분의 2 정도로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일시금을 택해도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권자로서 불이익은 유지된다. 수급 형태나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본인과 배우자 모두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일시금을 택했던 퇴직 공무원들로부터 기초연금을 달라는 민원이 늘고 있다”며 “상당수는 일시금으로

창업을 했다가 실패해 현재 소득도, 재산도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시금 수급자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들과 같은 조건에서 연금을 택한 수급자들과의 형평성 때문이다. 모든 수급권자의 소득·재산을 따져 기초연금 지급 여부를 정하는 방법이 있지만, 공무원연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걸림돌이다.

정부 관계자는 “수급권자 중 일시금 수급자의 소득·재산을 따로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기초연금이란 제도가 국민연금의 역사가 짧아서 발생하는 노후소득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그러다 보니 지역연금의 혜택을 받는 분들을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게 취지에 맞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역연금 수급권자라 해도 연금을 포기해 현재 소득·재산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긴 어렵지만, 국회에선 관련 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는 만큼 충분히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 나경원 “노조의 사회적 책임 법제화하자”

###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다. 나 원내대표는 “정권을 비판하면 독재·기득권·적폐로 몰아간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분노의 여론을 자극하고 언론과 극렬 세력의 돌

나경원(사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문재인 정권은 신독재를 경계해야 한다”며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가 오히려 독재 수단으로 오용되고, 독재자가 선거를 악용해 득세한 사례를 우리는 역사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정권 역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아닌, 이 정권의 절대권력 완성을 위해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가 언급한 ‘신독재’는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칼럼에서 언급된 표현이다.

이코노미스트가 말하는 신독재의 과정은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집권한 뒤 국민의 분노를 적에게 돌리고, 언론을 무력화해 권좌를 유지하는 등의 단계로 진행된

팔매질이 시작된다. 대법원, 헌법재판소를 착착 접수했다”며 “마지막 퍼즐은 패스트트랙(국회 신속처리안건 지정) 폭거로 현실화됐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응한 ‘노조의 사회적 책임(USR)’을 법제화하자고 제안했다.

또 노동 관련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점차 근근기준법의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다. 새로운 산업 환경과 근로 형태에 맞는 ‘노동자유계약법’도 근근기준법과 동시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쿨조끼 시원합니다” 이해찬(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오후 폭염 취약 거주지 현장 점검차 경기도 평택시 송탄소방서를 방문해 폭염 피해 현황 및 대응 상황을 보고받은 후 쿨조끼를 입어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가스공사  
KOREA GAS CORPORATION

www.kogas.or.kr



굴착공사 신고번호  
**1644-0001**

가스안전

## 바르게 딛는 안전의 첫걸음

굴착신고 및 사전협의는 굴착공사의 시작입니다

굴착공사에 의한 배관 손상사고로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굴착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굴착신고는 필수입니다.

**굴착공사 신고절차**

굴착공사계획 신고 ● 접수번호 발급 ● 가스배관 및 굴착현장 표시  
● 굴착공사개시 통보 ● 굴착공사 시행

\* 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시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민주당, 정개특위 위원장 말을 듯

### 내부 논의 거쳐 내주 초 결론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의원 총회를 열어 정치개혁·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내부 논의를 거쳐 다음 주 초 결정하기로 했다.

박찬대 원내 대변인은 이날 의총 직후 브리핑을 통해 “지도부에 결정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해 다음 주 초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 원내 대변인은 “오늘 여러 의원들의 폭넓은 이야기를 들었다”며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풍부한 이야기가 진행됐고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 이번 주까지 숙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정개특위 위원장과 사개특위 위원장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국면에서 공조했던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민주당을 향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 선거제 개혁 의지를 보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열린 의총에서 지도부는 ‘정개특위를 선택해야 한다’, ‘사개특위를 선택해야 한다’는 양측 의견을 모두 경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현정 기자 jh@

## EU, 韓에 전문가 패널 소집 요청

### ▶1면서 계속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5월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로서는 EU와의 분쟁이 경제 불확실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미비준 핵심협약 4개 중 3개인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와 ‘강제노동 제29호’ 등에 대해 비준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치적 견해 표명이나 노조 파업을 막기 위한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강제노동 철폐 협약인 제105호 협약은 제외됐다. 고용부는 정기 국회 내에 비준 동의안과 관련 법안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고용부는 “EU가 제기한 쟁점에 대해 전

문가 패널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함과 동시에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법 개정 등을 위한 국내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이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LO 총회에 참석해 ILO 핵심협약 비준 계획을 공식 발표하는 등 EU와의 무역 갈등 소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합의안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당 소속 김학용 환경노동위원회장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은 시기상조이며 좀 더 심숙고해야 할 과제”라며 비준안 처리에 난색을 표한 바 있다. 재계는 ILO 핵심협약 비준 시 노사관계가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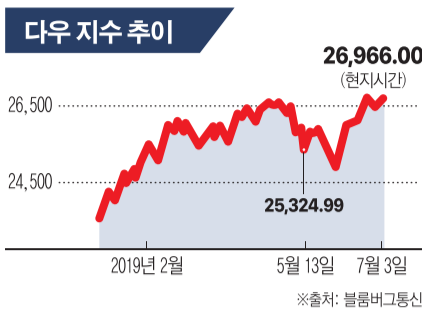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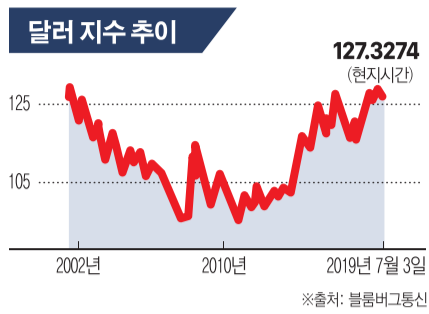
# “中·EU 통화 조작”...트럼프 ‘환율 개입’ 시동

“달러약세 유도 목적” 유력 연준엔 거듭 금리인하 압박 이달 FOMC가 행동 분수령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 재개를 선언한 지 며칠 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유럽의 환율조작을 문제 삼고 나서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미국이 달러 약세를 유도하려고 조만간 환시 개입에 나서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부상하고 있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중국과 유럽이 미국과 경쟁하려고 (통화) 시스템에 돈을 쏟아 붓고 있다”며 “통화 조작 개입을 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대응하지 않으면 다른 국가들이 개입을 하는 동안 뒤로 물러나 앉전히 지켜보는 멍청이 노릇을 계속해야 한다”고 미국의 대응을 촉구했다.

블룸버그는 전문가를 인용해 트럼프의



이 발언이 단순한 구두 경고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조만간 미 재무부가 달러 약세 유도를 위해 외환시장 개입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엔화 가치가 치솟자 국제 공조의 일환으로 달러 강세를 유도한 이후 외환시장 개입을 자제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달러 강세를 문제 삼고 있다. 5월 말 미 재무부가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보류한 이후에도 트럼프는 달러 강세에 대한 불만을 거듭 내비쳐왔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이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고조되고 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가 이달 말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를 지켜보고, 만일 연준이 또다시 금리를 동결할 경우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점쳤다. 트럼프의 환율 조작 언급은 연준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수단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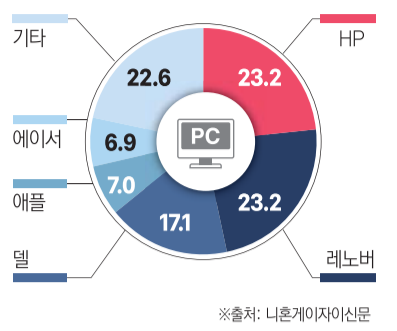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연준의 네 차례 기준금리 인상이 미국의 주가와 경제성장을 해친다며 금리 인하를 압박해 왔다. 지난달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시키지 않은 연준을 향해 “고집 센 아이처럼 말을

안 듣는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바이판 라이 CIBC 외환전략분석가는 “트럼프의 ‘환율 조작’ 집착은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미 재무부가 수십 년간 외환시장 개입을 피해왔지만 지금 트럼프 정부하에서 그 전략이 변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이미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트럼프의 주장에 힘을 보태는 모양새다. 4일 미국 증시에서는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완화정책 기대감에 따른 투자심리 고조로 3대 주요 지수가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차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로 지명된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마리오 드라기 현 ECB 총재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트럼프가 공식인 연준 이사에 발탁한 2명도 금리 인하 지지파로 알려졌다. 김서영 기자 0jung2@

글로벌 PC 시장점유율 (단위: %, 2018년 기준)



## ‘G2 휴전’ 무색 HP·델 “脫중국”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휴전 선언이 무색하게도 글로벌 기업들의 ‘중국 엑소더스(Exodus)’ 행렬이 끊이지 않는다.

세계 1, 3위 PC 생산업체인 휴렛팩커드(HP)와 델이 노트북 생산의 최대 30%를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4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지아신문(닛케이)이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HP와 델은 중국 장쑤성과 상하이, 충칭시 등에 전자제품 수탁생산업체(EMS) 등에 위탁한 노트북 생산의 20~30%를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베트남과 필리핀, 대만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른 IT 대기업들도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게임기 ‘엑스박스’ 생산 일부를 태국과 인도네시아로, 아마존닷컴은 킨들과 ‘에코’ 스피커 생산을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에이스와 아수스 등 대만 업체들은 물론 심지어 중국 기업인 레노버그룹도 탈중국을 모색하고 있다. MS와 더불어 글로벌 게임콘솔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일본 소니와 닌텐도도 중국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별도로 만나 무역협상 재개와 추가 관세 부과 보류 등 임시 휴전에 합의했다. 그럼에도 기술기업들은 상황이 여전히 불확실하고 중국의 인건비 등 생산비용이 계속 오르는 상황이어서 생산기지 이전 계획을 바꾸지 않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앞서 애플도 지난달 스마트폰 생산의 최대 30%를 중국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청 업체들에 지시한 바 있다. 완성품 업체들이 생산기지를 옮기면 서플라이 체인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움직임은 수십 년간 중국 수출 성장세를 주도한 전자업체들에 큰 타격을 줄 전망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 스마트폰·PC 생산국이다. 중국 데이터제공업체 첸잔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의 전자산업 수출입은 1991년 100억 달러(약 12조 원)를 약간 넘는 수준이었으나 2017년 1조3500억 달러로 무려 136배 성장했다. 현재 PC와 스마트폰 관련 고용인원은 1000만 명 규모에 달한다. 그만큼 기업들의 생산 거점 이전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는 의미다.

배준호 기자 baejh94@

## 보잉 ‘737맥스 추락’ 유족에 1억달러 지원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이 두 차례의 ‘737맥스’ 기종 추락 사고의 유족과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해 1억 달러(약 1168억원)를 내놨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추락 사고로 떨어진 회사의 명성 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지만 유족들은 달갑지 않은 분위기다.

WSJ에 따르면 기부금은 유족의 생활비와 자녀들의 학비 지원, 지역 개발 등에 쓰일 예정이다.

보잉은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라이언에어와 올해 3월 에티오피아항공 소속 737맥스 추락 사고로 희생된 유족들과 화해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 두 차례의 추락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등 총 346명이 사망했다.

보잉의 이번 조치는 잇따른 대형 추락 사고, 미숙한 대응으로 실추된 회사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보잉은 유족들이 제기한 100건 이상의 소송과 당국의 조사에 직면한 상태다. 보잉 관계자는 “1억 달러의 기금은 소송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소송과 중재에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유족이 보잉에서 돈을 받아도 보잉을 고소할 권리를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데니스 물렌버그 보잉 최고경영자(CEO)는 “승객의 유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당사의 첫 지원이 이런 이들을 치유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족들이 이번 보잉의 지원금을 신청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보잉은 현지 정부 및 비영리 단체의 협력을 얻어 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다만 1억 달러를 내놓겠다는 보잉의 발표에 유족들은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다. 보잉이 사고 희생자 유족들과 화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일부 유족은 사고 경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화해할 뜻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소송 초기에 상당히 빨리 이런 제안을 내놓은 것은 이례적”이라면서도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아직도 알아야 할 것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 제안은 솔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北 실종 호주유학생 석방 북한 평양에서 유학 중 갑자기 연락이 끊겼던 호주인 대학생 알렉 시글리(29)가 4일(현지시간) 취재진에 둘러싸여 중국 베이징공항을 나오고 있다. 그는 북한에 억류돼 있다가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억류된 이유는 알려진 바가 없다. 스콧 모리스 호주 총리는 이날 의회에서 “시글리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억류돼 있다 풀려났다”며 “호주 정부를 대표해 시글리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노력한 스웨덴 당국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베이징/AP연합뉴스

## 中 바이두 CEO, 연설 도중 괴한에 ‘물벼락’

리엔홍 회장 “AI시대, 예기치 못한 일들 많아” 기지 발휘

중국 최대 인터넷 검색업체 바이두의 리엔홍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연설 도중 ‘물벼락’을 맞았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바이두의 인공지능(AI) 개발자 포럼인 ‘바이두 크리에이트 2019’에서 한 남성이 갑자기 무대에 난입해 리 CEO에게 물세례를 퍼부었다. 당시 리엔홍이 기조연설에서 AI를 통한 주차 서비스를 소개하던 중이었는데, 검은 티셔츠를 입은 한 남성이 무대 위로 올라가더니 그의 머리 위에 생수병에 담긴 물을 부은 것이다.

중국 인터넷 업계 거물인 리엔홍은 몇 초 동안 얼어붙었지만 이내 얼굴을 닦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연설을 마무리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그는 영어로 가해자에게 “무슨 문제냐”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모두가 봤듯이 AI로 가는 길에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다양하게 일어난다”

고 기지를 발휘했다.

남성이 무슨 이유로 리엔홍에게 물을 부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체포해 현재 조사 중이다. 바이두는 웨이보에 올린 성명에서 “해당 행동을 강하게 규탄한다”며 “이는 부끄럽고 불안감을 주는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바이두는 최근 수년간 여러 차례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 2016년 한 대학생이 바이두 검색 결과 추천한 병원에서 영타리 치료를 받다가 숨지면서 브랜드 이미지가 추락하고 매출에 막대한 타격을 줬다. 중국 경기둔화가 지속되면서 실적 부진도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지난 1분기에 2005년 상장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한편 CEO들이 봉변을 당하는 일은 전 세계에서 종종 일어난다. 지난달에도 한 동물보호 활동가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중국 베이징에서 3일(현지시간) 열린 바이두 크리에이트 2019 행사에서 리엔홍(왼쪽) 바이두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기조연설 도중 한 남성으로부터 물벼락을 맞고 있다.

베이징/AP연합뉴스

서 열린 한 콘퍼런스에서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닷컴 CEO가 연설하는 도중 기습 시위를 벌였다. 배준호 기자 baejh94@

한 글자로 풀어본  
사회적 가치

SK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는

# 어 업

: 사회의 문제를 새로운 기회로 바라보고  
정답이 아닌 해답을 함께 찾는 새로운 업(業)으로써  
사회와 기업을 함께 UP시킴을 뜻함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우리 모두의 행복이 'UP'될 수 있도록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행복하도록 **OK! SK**



# 농협銀, AI로 해커 잡는다... '5·5·7 전략' 올인

NH농협은행이 인공지능(AI)으로 해커를 잡아내는 정보보안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정보기술(IT) 예산의 많은 부분을 정보보안 부문에 할애하면서 고객정보 보호에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5·5·7' 전략에 집중하면서, 정보보안 부문의 AI 기술 개발을 위해 외부 업체 기술까지 도입하고 있다. '5·5·7' 전략은 전체 은행 인원의 5%는 IT부서에서 근무해야 하며, IT인력의 5%는 보안 부문에 배치해야 하고, IT예산의 7% 이상은 보안 예산으로 넣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해당 원칙은 은행 경영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보안 투자에 소홀하기 쉬운 점을 고려해, 정부가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다. 강제가 아닌 권고 사항이지만

은행 직원 5%, IT부서에서 근무 IT인력 5%, 보안 부문으로 배치 고객정보 보호에 IT예산 7% 배정

세계 해킹 수법 데이터 축적 관제 인력도 인공지능 대체

사실상 금융감독원의 은행 평가 항목에서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어, 많은 은행들이 해당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타행의 '5·5·7' 기준을 넘어 '5·5·10'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전체 IT예산의 7%를 훌쩍 넘는 10% 이상을 정보보안에 할애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 농협은행 해킹 사례

2011년 4월	1차 전산 해킹 발생
	- 창구업무 중단
	- 인터넷뱅킹 중단
2012년 1월	전 카드업무 일시 정지
	- 창구업무 중단
	- 인터넷뱅킹 중단
2013년 3월	2차 전산 해킹 발생
	- 창구업무 중단
	- 인터넷뱅킹 중단

과거 2011년 해커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전산 시스템이 마비된 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정보보안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세계 각국 해커들의 해킹

수법을 데이터로 축적해, 각 데이터를 숙지한 AI가 해커들의 공격을 걸러낼 수 있도록 클라우드 개발과 AI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해당 기술은 올해 하반기에 완성될 예정이며 농협은행이 성공하면 은행권 최초의 AI 해커 방어 기술이다.

은행권에 공격을 시도하는 서버는 크게 러시아, 이란, 중국, 북한으로 파악된다. 주로 북한은 돈을 탈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은 기술을 염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란은 핵 관련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은행 서버를 해킹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끊임없이 보안 부문에 재정을 투입하고 기술 개발에 힘써야 하는 이유는, 그만큼 외국 해커들도 기술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매번 새로운 방식으로 공격하는 해커들과 어떻게든 공격을 막아야 하는 은행은 창과 방패의 관계"라고 설명했다.

농협은행은 관제부문 인력도 AI로 대체할 계획이다. 현재 농협은행 관제 시스템은 사람이 4교대로 돌아가면서 업무를 보고 있다. 농협은행 내부에서 AI기술 개발이 진척을 보이면, 컴퓨터가 관제시스템 내 모든 작업을 수행하도록 바꿀 예정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정보보안은 고객들이 은행에 갖는 신뢰도와 직결되는 부문이기 때문에 절대 소홀할 수 없는 분야이고, 은행이 가장 힘써야 하는 분야"라면서 "이대훈 행장 역시 정보보안에 큰 관심을 갖고 있어, 해당 분야에 많은 예산이 할당됐다"라고 설명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

## 하나금융 글로벌 결제망 탑승한 '토스'

"해외 사업영역 확장 가속도"

KEB하나은행은 3일 바리리퍼블리카와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하나금융그룹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플랫폼인 GLN(Global Loyalty Network)에 토스(Toss)가 공식 참여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하나금융그룹 GLN은 전 세계 14개국 총 58개사가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해외 결제서비스 플랫폼이다. 전 세계 금융기관, 유통회사, 포인트 사업자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네트워크 허브로 국경의 제한 없이 모바일로 자유롭게 송금, 결제, ATM 인출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전자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GLN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하나금융그룹 통합멤버십 '하나멤버스' 앱도



KEB하나은행은 3일 강남구 역삼동 아크플레이스 빌딩에서 바리리퍼블리카와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하나금융그룹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플랫폼인 GLN(Global Loyalty Network)에 토스(Toss)가 공식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하나금융그룹

는 제휴사 자체 앱에 탑재돼 별도의 설치나 가입 없이 이용 가능하고 특히 실시간 국가

별 환율이 자동 적용돼 환전절차 없이 편리하게 선불 및 직불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GLN은 올해 4월 대만을 시작으로 5월 태국서비스를 오픈했다. 이번 제휴를 통해 토스앱에도 GLN이 탑재돼 향후 토스 사용자들도 더 많은 국가의 온·오프라인상 다양한 결제업무를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한준성 미래금융그룹 부행장은 "이번 파트너십 구축을 계기로 토스 고객들에게도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지속적으로 성장 중인 글로벌 전자결제서비스 시장에서 다시 한 번 KEB하나은행의 입지를 다질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KEB하나은행은 파트너들과 함께 GLN을 통한 새로운 글로벌 사업영역 확장을 지속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 상호금융, 배당금 3700억 주인 찾는다

출자금 등 연내 조회 시스템 구축

금융당국이 상호금융 조합원이 찾아가지 않는 배당금과 출자금 3700억 원 돌려 주기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서대문구 농협중앙회에서 '상호금융권 국민 체감 금융서비스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위는 이날 활성화 방안으로 △출자금·배당금 지급체계 구축 △예·적금 금리 산정체계 개선 △자체 채무조정 제도 정비 등을 발표했다.

먼저 상호금융조합을 탈퇴한 조합원이 찾아가지 않은 3682억 원 규모의 출자금과 배당금을 환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탈퇴 조합원의 주소 파악이 어렵고 소액을 받기 위해 조합을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다. 이에 금융위는 출자금과 배당금 일괄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본인 계좌로 이체 해주는 전산체계(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

포')를 연말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또 9월부터 주민등록 전산 정보를 활용해 탈퇴 조합원의 주소를 확인하고 미지급금을 찾아 가도록 서면 안내할 예정이다.

이율리 예금자 지원을 위한 금리 산정체계도 개선된다. 지난해 기준 예·적금 중도 해지 금액은 55조 원에 달하고, 해당 이자는 1200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중도해지 이율과 만기 이후 이율에 대한 설명은 '조합에서 고사한 이율에 따른다'는 명시가 전부다.

현재 농협은 '만기 이후 이율 자율 결정'이지만, 금리 산정체계 개선 이후에는 '만기 후 6개월까지 약정이율의 50% 지급'으로 변경된다. 이 밖에 만기 일주일 이전에 문자 메시지로 예금자에게 통보하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금융위는 "중도에 해지할 경우 현행보다 최대 300만 계좌에 547억 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용욱 기자 dragon@

www.douzone.com

# 인공지능 ERP

## 업무를 스스로 처리하다!

**회사 밖에서 급한 임무가 생기면 어떡하지?**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로도 실시간 업무 진행이 가능한 스마트워크

**민을 만한 거래처인가?**  
거래처 신용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회계처리 쉬운 방법 없을까?**  
거래내역 자동수집, 자동분계, 자동입력하고 회계 및 데이터 오류까지 자동 검증

**우리 회사 경영 상황을 분석할 수 있을까?**  
ERP에 축적된 데이터를 기업에서 필요한 형태로 수정할 수 있는 분석툴 제공

더존 iCUBE가 더욱 스마트해졌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와 빅데이터 처리기술, 기계학습 방법론 및 딥러닝 응용 알고리즘을 구현한 인공지능 ERP, 더존 iCUBE  
기업의 업무는 이제 국내 유일 인공지능 ERP, 더존 iCUBE에 맡기십시오.

**기업용 ERP**

- 회계관리, 인사·급여관리, 영업관리
- 무역관리, 구매·재재관리, 생산관리
- 와주관리, 서비스관리, 경영정보관리
- 공사현장관리

더존 iCUBE  
더존 iCUBE Cloud Edition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용 ERP**

- 예산관리, 자산관리, 후원자관리
- 회계관리, 인사·급여관리, 경영정보관리
- 영업관리, 구매·재재관리, 생산관리

더존 iCUBE G20  
더존 iCUBE G20 Cloud Edition

**더존 ERP**      기업의 모든 IT 고민, 더존 IT코디네이터와 상담하세요!      문의 1688-5000



<지난해 9월 대비 60% 하락>

# 삼성, D램값 1년 만에 온탕서 냉탕...“앞으로가 더 걱정”

**오늘 2분기 잠정 실적 발표  
영업익 60% 감소 예상  
日 소재 수출 규제 의식  
“납품 차질 없게” 고객사 서한**

“어차피 2분기 실적 감소는 예상돼 있던 건데, 앞으로가 훨씬 더 걱정스럽습니다.” 잠정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둔 4일, 삼성전자 고위 관계자가 털어놓은 속내다.

삼성전자 주력 사업인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은 계속 내림세고, 미·중 무역 전쟁으로 글로벌 업황 침체도 장기화할 분위기다. 설상가상으로 이날부터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 규제가 시작됐다.

삼성전자는 5일 오전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한다. 애플뱅크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분석한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컨센서스는 매출 54조784억 원, 영업이익 6조 787억 원이다. 반도체의 부진 심화로 한때 전망치가 5조 원대까지 내려갔으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다소 회복한 모습이다.

그러나 여전히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14조8700억 원)보다 무려 59% 감

소한 규모다. 10개 분기 만에 가장 낮은 실적을 기록한 전 분기와 비교해도 1000억 원 이상 줄어든 전망이다.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반도체 재고가 쌓이면서 주력 제품인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이 크게 떨어진 탓이다.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지난달 D램 가격(DDR4 8 Gb 고정거래가격)은 개당 3.31달러로 5월(3.75달러)보다 11.73%나 떨어졌다. 지난달 울 들어 처음으로 두 자릿수 하락세를 벗어났지만, 다시 큰 폭의 내림세를 이어가면서 3달러 선까지 위태로워졌다.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 9월(8.19달러)과 비교하면 무려 60% 가까이 하락했다.

하반기 전망도 불투명하다. D램익스체인지는 보고서에서 “악화하는 미·중 통상전쟁이 D램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가격 회복세까지는) 2~3분기가 더 지나야 할 것이고 가격도 현재보다 30~40%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계절적 수요에 따라 하반기 D램 가격 하락 폭이 축소될 것이라는 기존 ‘상저하고(上低下高)’ 전망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는 얘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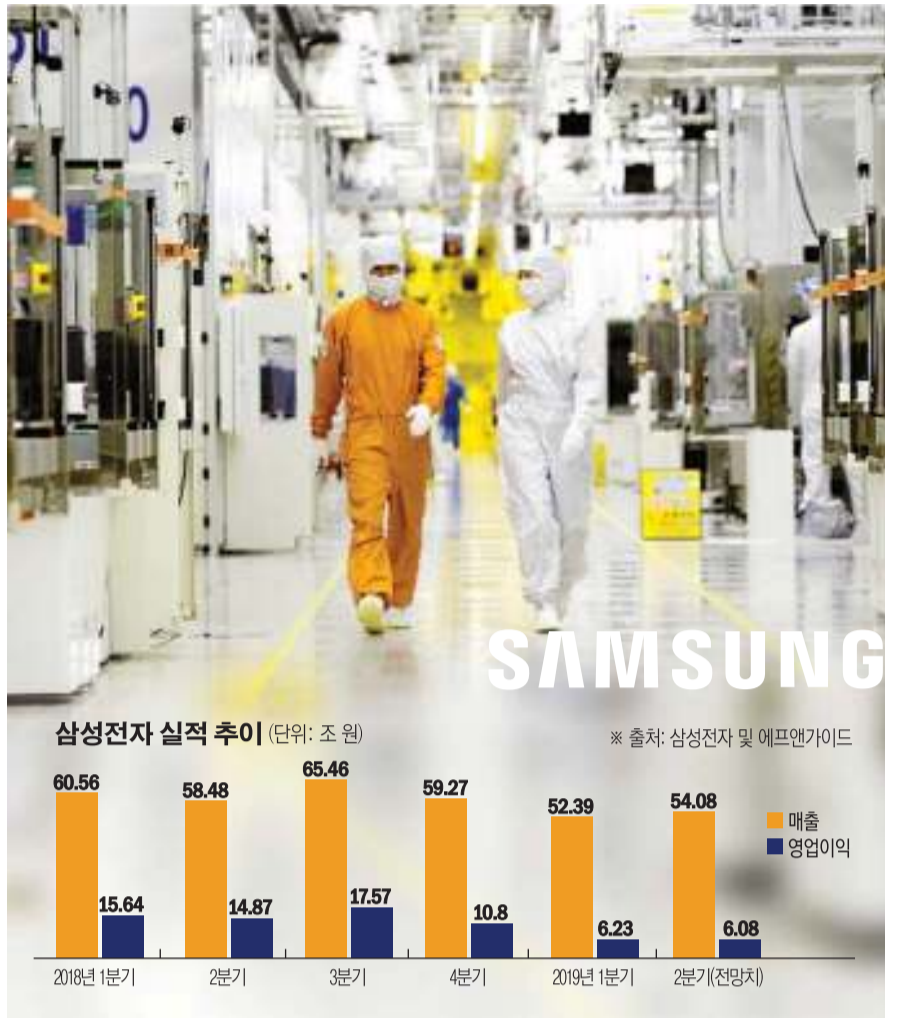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문병기 수석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수출입 평가 및 하반기 전망 보고서’를

통해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거시 불확실성 확대와 반도체 세계 최대 수요국인 중국의 소비 정체 등으로 전년 대비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큰 틀에서 상저하고 기조를 유지하지만 회복 시점은 예상보다 늦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날부터 시작된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로 반도체 핵심 소재 조달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삼성전자가 2030년 1위에 오르겠다고 밝힌 비메모리 사업 확대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반기부터 파운드리 사업에서 EUV(극자외선) 라인 양산을 시작할 예정인데, 여기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한 삼성전자는 지난 2일 파운드리 사업 주요 고객사에 “납품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미국 퀄컴, 엔비디아, IBM 등 유력 IT 업체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생산·공급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 우려뿐만 아니라 상반기 출시가 연기된 ‘갤럭시 폴드’도 제대로 나와야 하고,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도 예정돼 있어 경영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국내 출시를 앞둔 미국 정통 픽업 쉐보레 '콜로라도'. 미국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투 도어 기본형이 2만1500달러(2515만원)에 팔리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지엠

## 쌍용차 픽업 독점 깨진다...쉐보레 콜로라도 내달 상륙

**3000만원대 시판 예상**

한국지엠이 4일 미국 정통 픽업으로 꼽히는 콜로라도를 다음 달 국내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내 픽업 트럭 시장을 독점해온 쌍용자동차와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콜로라도는 미국 시장에서 지난해 14만 대 이상 판매된 쉐보레의 주력 모델 가운데 하나다. 콜로라도가 인기를 얻는 비결은 쉐보레가 100년 넘게 쌓아온 편의 사양에 대한 노하우 덕분이다. 국내에 선보이는 모델도 화물칸에 쉽게 오를 수 있는 코너 스텝과 테일게이트가 안전하게 천천히 열리도록 하는 시스템, 미닫이 방식의 2열 뒷유리 등 편의사양을 갖출 예정이다.

그동안 국내 픽업 시장은 쌍용차가 독점

하고 있었다. 쌍용차는 2002년 무쏘 스포츠를 처음 선보이며 픽업 트럭 시장에 뛰어 들었다. 경쟁사가 시도하지 않은 블루오션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이었다. 나아가 SUV와 같은 기능을 갖췄으며 연간 2만 원대에 불과한 자동차 세금도 메리트였다.

전략은 들어맞았다. 무쏘 스포츠는 출시 당시 개성적인 디자인과 활용성으로 관심을 받았다. 인기 요인을 바탕으로 픽업 트럭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이어졌다. 무쏘 스포츠는 2005년 단종 때까지 국내에서 7만4000대가 넘는 판매 기록을 세웠다.

그러자 쌍용차는 액티언 스포츠(2006년), 코란도 스포츠(2012년), 렉스턴 스포츠(2017년) 등 스포츠 브랜드를 연이어 내놓았다. 액티언 스포츠도 7만 대, 코란도 스포츠는 11만 대 이상 팔리며

쌍용차의 스포츠 브랜드는 총 35만 대 이상의 판매 기록을 세웠다. 특히 렉스턴 스포츠는 사전 계약 4일 만에 2500대를 돌파하고 출시 한 달 만에 1만 대 이상 팔리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이번 한국지엠의 콜로라도 출시로 쌍용차가 독점하던 픽업 시장에도 균열이 생길 전망이다. 한국지엠은 콜로라도뿐 아니라 대형 SUV 트래버스를 하반기에 선보이며 국내 대형SUV 시장을 지속적으로 노릴 계획이기 때문이다.

한편 콜로라도 가격은 미국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투 도어 기본형 2만1500달러(2515만 원)이며 옵션과 운송비 등을 고려하면 3000만 원대에서 국내 시판 가격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창욱 기자 woogi@

## 한경연 “취업자 20만 명 줄어”...정부 발표 반박

<2017년 대비>

**주36시간 일자리 환산 결과  
단시간 근로 증가 두드러져**

최근 일자리 쪼개기, 단기 알바 등의 현상을 고려한 근로시간을 따졌을 때 우리나라의 전체 일자리 수가 오히려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근로시간을 36시간 기준으로 환산해 분석하면 올해 취업자 수는 정부 발표와는 달리 오히려 2017년 대비 20만 명 이상 줄어 들었다는 분석이다.

4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성신여대 박기성 교수에게 의뢰해 분석한 ‘근로시간을 고려한 취업자 수 분석’ 자료에 따르면 1주일에 36시간 일자리 기준으로 취업자 수를 환산한 결과, 취업자 수는 2019년 2488만4000명으로 2017년보다 20만7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33만 명 취업자 수 증가와 정반대의 결과다.

결국 통계상의 취업자 수는 늘고 있지만 들여다보면 36시간 미만의 취업자가 주로 증가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동

기간 주 36시간 이상 일한 취업자 수는 71만 5000명이 감소한 반면 주 36시간 미만 일한 취업자는 100만5000명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박 교수는 “근로시간을 고려한 ‘주 36시간 이상 일자리 기준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단기 일자리 축소,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영향으로 인해 주 36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가 단시간 근로로 대체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주로 민간산업 분야의 환산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특히 제조업(17만 명), 교육서비스(10만 명), 도소매업(9만6000명) 분야에서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각 취업자의 주 근로시간을 모두 합산한 고용총량 각 취업자의 주 근로시간을 합해 고용총량의 변화를 추정해 보면 일자리 변화가 더 분명해 드러난다. 각 취업자의 주 근로시간을 모두 합한 고용총량은 2019년 11억2792만2000시간으로 2017년에 비해 4738만9000시간 줄었다. 2년 전보다 4.0% 감소한 것이다. 김유진 기자 eugene@

## “삼성 비스포크,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냉장고”

**해외 미디어 호평 잇따라**

삼성전자는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냉장고 ‘비스포크(BESPOKE)’가 해외 시장에 출시되기도 전에 현지 미디어와 거래선으로부터 주목받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비스포크는 소비자의 취향과 주거공간 등에 따라 8가지 제품 타입과 9가지 색상의 패널을 조합해 구매할 수 있는 맞춤형 냉장고다. 제품은 현재 한국에서만 판매하고 있으나 해외 미디어들이 비스포크 소식을 현지에 전하며 높은 관심을 보여 주고 있다.

미국 경제 전문매체인 파스트컴퍼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냉장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비스포크는 냉장고에 대한 기존 관념을 탈피해 냉장고를 새롭게 정의했다”고 극찬했다. 이외에도 미국 리뷰 전



3월 중남미 주요 매체 기자들이 삼성디지털프라자 강남본점을 방문해 맞춤형 냉장고 ‘비스포크’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문 매체인 리뷰닷컴은 “그동안 냉장고를 추천할 때 내구성이 좋거나 에너지 효율이 좋다는 말을 주로 했다”며 “비스포크는 냉장고가 기능적인 동시에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제일기획 ‘반려견은 가족’  
캠페인 영상 1000만 클릭**



제일기획은 G마켓과 함께 제작한 ‘반려견 쇼핑 금지’ 캠페인 영상(사진)이 유튜브 조회수 1000만 건을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

5월 30일 공개된 이 영상은 현재 조회수 1016만 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

은 국내 유기 동물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반려견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다.

영상은 한 아이에게 사랑받던 강아지 인형이 관심에서 멀어지다가 결국 버려지는 과정과 유기견의 모습을 반전 구성으로 보여주며 “반려견은 인형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제일기획 관계자는 “쇼핑을 장려해야 할 쇼핑 플랫폼이 ‘(반려견을) 쇼핑하지 말라’고 호소하는 ‘역발상’ 메시지가 캠페인에 진정성을 더하고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었다”고 설명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 SK 합작사, 中 대표 정유화학사 도약

SK·시노펙 출자한 중한석화 정유사 '우한분공사' 인수 현판식 中 정부 정유화학 결합 일환 "글로벌 파트너링 지속 확대"

SK중합화학과 시노펙(SINOPEC)이 합작해 설립한 중한석화가 우한분공사 인수를 마무리하면서 본격적으로 중국 정유·화학 회사로 도약한다.

중한석화는 3일(현지시간) 중국 후베이성 우한 소재 우한분공사에서 SK중합화학, 시노펙, 중한석화 경영층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노펙 산하 우한분공사 인수를 기념하는 현판식을 열었다.

이날 현판식에는 나경수 SK중합화학 사장을 비롯해 시노펙 레이첸우 고급부총재, 중한석화 관저민 총경리 등이 참석해 중한석화와 우한분공사 통합 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중한석화는 SK중합화학과 시노펙이 35대 65의 비율로 합작해 2013년 10월 설립한 회사로, SK그룹이 추진 중인 글로벌

파트너링 전략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힌다.

앞서 SK중합화학은 4월 중한석화의 우한분공사 인수를 위해 11억 위안(약 1898억 원)을 현금 출자하기로 이사회 의결했다. 시노펙은 우한분공사 자산 20억5000만 위안(약 3526억 원)을 현물 출자해 양사 지분 비율은 35대 65로 유지된다. 우한분공사 총 인수가액은 토지자산 포함 128억4000만 위안(약 2조2069억 원)으로 양사 출자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외부 차입으로 충당한다.

SK중합화학은 "SK와 시노펙이라는 한중 최대 기업 간 화학사업 협력이 정부 부문으로 확대, 중국 정부가 신성장동력으로 추진 중인 정유와 화학을 결합하는 연화일체(炼化一體)의 대표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한석화는 우한분공사 인수를 통해 명실상부한 중국 내 대표 정유·화학기업으로 우뚝 서게 됐다.

석유화학회사 중한석화가 정유회사인 우한분공사를 인수함으로써 석유화학의 주 원료인 납사(Naphtha) 등 원료 수급

안정성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 외연 확장으로 중국 시장 내 입지 확대 또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SK와 시노펙 간 협력 관계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사 경영진은 현판식에 이은 만찬에서 중한석화 성공 모델에 기반한 다양한 추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SK중합화학은 울산CLX(Complex)의 공정 운영 역량과 SHE(Safety 안전·Health 보건·Environment 환경) 관리 역량을 중한석화에 이어 우한분공사에도 이식한다. 1년에 4차례 시행하고 있는 공정기술 교류회를 지난달부터는 우한분공사까지 범위를 확장했다. 이를 통해 생산 효율성 및 정유·화학공장 간 통합 시너지를 조기에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나경수 SK중합화학 사장은 "중한석화 성공 모델을 기반으로 우한분공사 인수·합병 작업도 올 하반기 내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이라며 "양사 기술력과 역량, 상호관계에 기반한 사업협력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반려동물 카시트·에어텐트...현대차 베뉴 '옵션의 진화' 현대자동차가 이달 중 출시하는 엔트리급 SUV '베뉴(VENUE)'를 통해 고객 맞춤형 옵션을 선보인다. 현대차는 4일 밀레니얼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베뉴' 특익스(TUX) 상품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총 21개의 외장컬러와 디자인 특화 모델 '플럭스(FUX)'도 함께 운영한다. 베뉴 특익스 상품에는 △적외선 무릎 워머 △반려동물 패키지 △오로토크램핑 공기주입식 에어 카텐트 △스마트폰 IoT 패키지 △프리미엄 스피커 △17인치 블랙 알로이 휠 & 스피닝 휠 △컨비니언스 패키지(스마트폰 무선충전기 등) △스마트 패키지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 △C필러 베지(4종) 등이 있다. 위부터 베뉴 에어 카텐트, 반려동물 전용 카시트. 사진제공 현대차

## LG 휴대용 공청기 '대기오염국' 진출 확대

대만 이어 인도 8월 출시 검토

LG전자가 휴대용 공기정정기 'LG 퓨리케어 미니 공기정정기' (사진) 글로벌화에 시동을 걸었다. 휴대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공기 청정 능력이 뛰어나다는 국내 소비자들의 호평에 힘입어 대만에도 제품을 출시했다. 향후 인도에도 기기를 선보일 가능성이 높아 퓨리케어 미니가 판매되는 국가는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4일 업계 및 외신에 따르면 LG전자는 최근 대만에 퓨리케어 미니 공기정정기를 선보였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인도 시장에는 8월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3월 우리나라에서 첫선을 보인 퓨리케어 미니 공기정정기의 무게는 생수 한 병과 비슷한 530g에 불과하다. 크기가 작음에도 △극초미세먼지를 감지하는 '포터블 PM 1.0센서' △깨끗한 공기를 빠르게 넓게 보내주는 '토네이도 듀얼 청정팬' 등을 도입해 공기 청정 성능이 뛰어나다.

퓨리케어 미니 공기정정기는 공개되자마자 많은 인기를 끌었다. 특히 갓난아기를 키우는 젊은 부모들이 유모차에 달 수 있는 퓨리케어 미니 공기정정기를 많이 구매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제품의 하루 최대 판매량은 약 2000대 수준이다.

LG전자가 퓨리케어 미니 공기정정기를 대만에 이어 인도에도 선보이는 데는 수요가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



만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인도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인도 수도인 뉴델리는 지난해 말 세계보건기구 안전 기준의 13배에 달하는 초미세먼지 수치를 기록했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공기정정기를 사치품으로만 여겼던 인도인들이 제품을 찾기 시작했다. 인도 상공회의소연합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가정용 공기정정기 시장은 연평균 29% 이상 성장할 전망이다.

LG전자는 대만, 인도를 시작으로 다른 국가에도 퓨리케어 미니 공기정정기를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대기오염은 일부 국가에서만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LG전자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에 추가로 제품을 판매할지 정해진 게 없지만, 퓨리케어 미니 공기정정기를 선보일 시장은 앞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 삼성·LG, 한국서비스품질지수 AS 평가 1위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고객이 뽑은 전자제품 AS 품질 1위 기업에 선정됐다.

삼성전자서비스와 LG전자는 4일 한국표준협회 주관하는 '2019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AS 산업 평가에서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가전제품, 휴대전화, 컴퓨터 서비스 전 부문 1위를 석권했다. 특히 컴퓨터 AS는 18년 연속 1위, 휴대전화 AS는 16년 연속 1위로 이 부문 평가가 시작된 이래 단 한 번도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 삼성전자서비스는 고객 중심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평가 전 부문에서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업계에서 가장 많

은 178개의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LG전자는 2018년에 이어 2년 연속 가전제품 AS 부문 1위 브랜드로 선정됐다. LG전자는 올해 3월부터 6월 말까지 'LG 휘센 에어컨 자가점검 및 사전점검' 서비스를 실시했다. 고객들이 자가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점검방법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LG전자 서비스 홈페이지에 올렸다. 사전점검 서비스를 신청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엔지니어가 찾아가 점검 서비스도 진행했다.

'한국서비스품질지수'는 고객들이 서비스를 직접 체험한 후 만족도를 평가해 산업별 1위 기업을 선정한다.

권태성 기자 tskwon@

**Wenger®**  
**Swiss Made**  
**Watches**

3 Year Warranty  
Seaforce Chrono  
01.0643.111

**WENGER®**  
wenger.co.kr

KOI COMPANY Co.,Ltd. 02)6403-2112

I·SEOUL·U

너와 나의 서울



**‘영리’보다 ‘사람’**  
**12개 시립병원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병원에서 가정까지 촘촘히 돌봄 / 사회적 약자까지 누구든 돌봄

건강, 서울이 돌봄



# 쿠쿠·쿠첸... 밥솥 메이저의 '이유있는 외도'

국내 양대 밥솥 업체인 쿠쿠와 쿠첸이 사업 다각화에 힘을 쏟고 있다. 국내 쌀 소비량 감소와 반려동물, 전기레인지 시장 등이 커지면서 '외도'의 필요성이 높아진 탓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매해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61kg로, 1988년 연간 쌀 소비량 122kg의 절반 수준이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앞으로 1인당 쌀 소비량이 10년간 연평균 1.9%씩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여기에 1인 가구 증가와 밥솥 내수 시장이 포화된 것도 영향을 미쳐 밥솥 업체는 다각화에 분주한 모습이다. 국내 1위 밥솥 업체인 쿠쿠전자는 지난달 반려동물 전문 브랜드를 론칭하며 펫 시장 공략에 나섰다.

쿠쿠가 론칭한 브랜드 '넬로(Nello)'는 반려동물 행동전문가, 수의사 등 전문가 집단의 조언을 받아 펫 전용 상품을 개발한다. 넬로가 출시한 첫 번째 제품은 '펫 에어사워 앤 드라이룸'이다. 이 제품은 목욕 뒤 반려동물의 털을 빠르게 말려주는 건조 기능에 더해 먼지를 털어주는



## 쌀 소비량 감소·1인 가구 증가 따른 내수시장 포화 영향 쿠쿠, 반려동물 브랜드 '넬로' 론칭... '펫 에어사워' 출시 쿠첸, '인버터 복합레인지' 출시 전자레인지 시장 도전장

에어사워 기능을 갖췄다.

쿠쿠는 전기레인지 시장이 커지는 데 발맞춰 전기레인지 라인업도 강화하고 있다. 쿠쿠는 이날 '초고온 하이브리드 인덕션레인지'의 라인업 중 하나로 'CIHR-HL301FB'를 출시했다. 신제품에는 최근 전기레인지 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프레임리스 타입을 적용했다. 동시에 쿠쿠 밥솥 등에 적용된 IH(인덕션 히팅) 기술과 특허기술인 '초고온 모드'

가 탑재됐다.

쿠쿠는 2010년 렌털 사업에도 뛰어 들었다. 쿠쿠전자는 지난해 렌털 사업 부문 '쿠쿠홈시스'를 인적분할했다. 지난해 쿠쿠홈시스의 매출액은 4188억 원을 기록해 경쟁 업체인 청호나이스를 300억 원가량 차이로 제쳤다. 쿠쿠홈시스는 작년 10월 론칭한 '쿠쿠인스퓨어' 브랜드로 청정 생활가전 이미지를 굳히고, 렌털 기업의 전문성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왼쪽부터 쿠쿠전자 반려동물 브랜드 '넬로'에서 출시한 '펫 에어사워 앤 드라이룸', 쿠첸 '인버터 복합레인지', 쿠쿠전자 '초고온 하이브리드 인덕션레인지'. 사진제공 쿠쿠전자·쿠첸

쿠첸은 전기레인지와 유아 가전을 중심으로 다각화에 주력하고 있다. 미세먼지 영향으로 전기레인지 시장이 확대하는 가운데 지난해 쿠첸의 전기레인지 판매량은 약 9만 대로 전체 시장의 13% 정도를 점유했다.

1위인 SK매직이 13만 대를 판매해 18%를 차지했고, 쿠첸이 2위를 기록한 것이다. 2013년부터 전기레인지 사업을 했던 쿠첸은 올해 5월 업계 최초로 대기 전력 0.003W의 '하이브리드 레인지 제로(Zero)'를 출시하며 시장에서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다.

쿠첸은 올해 4월에 '인버터 복합레인지'를 출시하며 전자레인지 시장에도 진출했다. 쿠첸이 내놓은 첫 번째 전자레인지

제품인 인버터 복합레인지는 기존 전자레인지의 단점을 보완해 음식의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특징이 있다. 일정 분량의 음식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센서가 습도를 감지해 자동으로 적당한 온도와 시간을 설정한다.

또한 쿠첸은 지난해 3월 유아 가전 브랜드 '쿠첸 베이비케어'를 론칭했다. 분유 포트, 젓병 살균기, 이유식 밥솥 등이 주력 상품이다. 쿠첸 베이비케어는 올해 중국 시장도 진출할 계획이다. 쿠첸 관계자는 "정확한 중국 진출 시기는 아직 협의 중이나 연내일 것"이라며 "온라인 쇼핑몰과 백화점 등 온·오프라인 등 유통 채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 SK C&C, '태양광발전소 분석 플랫폼' 구축

현대일렉트릭 운영 72곳  
발전량 실시간 분석·예측  
ESS 출력 최적으로 제어

수익 극대화시킬 수 있고  
안정적 태양광발전 환경 확보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활용한 'ESS(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저장장치)·태양광 발전 혁신 플랫폼'이 나온다.

SK C&C는 4일 '아쿠인사이트 플러스 퍼블릭 서비스(AccuInsight·Public Service)'와 연계한 '현대일렉트릭 ESS·태양광 발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현대일렉트릭이 구축·운영

중인 72곳의 ESS 연계형 태양광 발전소에서 방대한 발전 설비 및 기상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안정적 태양광 발전 환경을 확보하면서도 발전 수익은 늘리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SK C&C와 현대일렉트릭은 태양광 발전 수익을 높이기 위한 '태양광 발전량 분석·예측 시스템'을 구축한다.

SK C&C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은 일조 시간, 발전시간뿐만 아니라 계절에 따라 봄·가을에 가장 발전량이 높고 여름에는 높은 온도로 인해 효율이 떨어져 수요와 공급에 따른 판매 수익에 차이가 나타난다. 반면 '태양광 발전량 분석·예측 시스템'을 활용하면 계절, 날씨, 시간 등에 따라 발전량을 실시간 분석·예측해 발전소와 연계된 ESS의 출력을 최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 발전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SK C&C는 태양광 발전과 안전이 핵심

인 ESS에 대해서도 이상징후 사전 탐지 모형을 개발한다. ESS의 배터리 온도와 전압, 온도, 전력계측 정보 등 ESS의 성능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인자를 실시간 분석하는 '헬스 인덱스(건강 지표)'를 개발한다는 것이다.

ESS 운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과거 사고·이상 유형과 유형별 원인 인자를 분석해 이상징후를 확인한다. 예를 들어 충·방전 시 발생하는 온도, 전압 등의 이상 현상을 감지할 경우 전류를 빠르게 차단하고 폭발·화재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헬스 인덱스'를 기반으로 ESS의 저장 한도, 온도, 충격 등의 설정 범위에 따라 발전량을 제어·차단하는 'ESS 건전성 진단 솔루션'을 개발해 ESS 안전 강화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김우람 기자 hura@

## 타보니 삼천리 전기자전거 '20팬텀 마이크로'

최대 주행 50km  
출퇴근용으로 딱  
오르막길도 가뿐



최근 출퇴근 및 여가용으로 전기자전거를 찾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적은 힘으로 장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장점 덕분에 걷기에는 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가까운 거리를 이용하기 좋은 새로운 이동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기자전거는 실제로 얼마나 편할까. 기자가 삼천리자전거의 전기자전거 '20팬텀 마이크로'를 직접 타봤다.

삼천리자전거의 20팬텀 마이크로 제품은 접이식 전기자전거로 지난해 선보인 '16팬텀 마이크로'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자전거는 간편하게 접고 펼 수 있어 차량 트렁크에도 넉넉하게 들어간다. 차량을 통해 야외로 이동한 뒤 그곳에서 자전거를 꺼내 레저를 즐길 수 있다.

다만 일반적인 자전거에 비해 내장형 배터리가 장착돼 있어 다소 무거운 느낌이 든다. 차량에 자전거를 실을 때는 무게 때문에 일반 체형의 여성이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다.

전기자전거의 핸들에는 도로주행 속도 조절이 가능한 LCD창이 있다. LCD창을 통해서 전기자전거의 전원을 켜고 배터리 잔량과 주행 시간, 주행 속도, 주행 거리, 누적 주행시간, 평균 속도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했다. 20팬텀 마이크로는 총 5단계로 속도 조절이 가능해 이용자가 원하는 스피드로 즐길 수 있다. 배터리를 완충하고 1단계로 달렸을 때 최대 50km까지 주행할 수 있다. 20팬텀 마이크로를 평지에서 5단계로 달려 보니 최대 시속 24km가 나왔다. 이는 법적으로 허용하는 최

핸들 부분에 달린 LCD창으로  
속도 조절·주행시간 확인 가능

내장형 배터리 장착돼 있어  
여성에게 다소 무거운 느낌

고 속도다. 다만 속도를 더 내고 싶을 때는 직접 페달링을 통해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이 전기자전거의 가장 큰 장점은 오르막길 주행이었다. 일반 자전거로는 몇 번이나 쉬면서 올라가야 하는 길을 전기자전거로는 밀바(자전거를 타고 주행하는 상태에서 옆사람의 등을 밀어주는 주행 방식) 도움을 받는 느낌이었다. 오르막길 주행을 테스트한 곳은 서울 북악스카이웨이와 서울 암사동에 위치한 암사교개(아이유 교개) 등 두 곳이었다.

이곳은 기자가 평소 자전거를 취미로 즐기면서 힘에 부쳐 하던 곳이다. 하지만 전기자전거로 이곳을 오를 때는 언덕임에도 불구하고 평지 느낌을 받았다. 페달을 밟으면 부드러운 가속이 생기면서 힘을 들이지 않고도 오르막을 올라갈 수 있었다.

조성준 기자 tiatio@

## 바이낸스, 코인 마진거래 서비스 한국인 제한 검토

이르면 이번주 최종 결정

세계 최대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출시를 준비 중인 마진 거래에 우리나라 국적 사용자의 서비스 제한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 아직 가상화폐 마진 거래가 법적 규정이 완벽하게 정립돼 있지 않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정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출시 준비 중인 마진 거래 서비스를 대한민국 국적의 사용자에게 서비스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르면 이번 주 최종 결정을 하고, 공식 채널을 통해 알릴 예정으로 전해졌다.

마진 거래란 증거금을 기반으로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 또는 공매도하는 금융거래다. 아직 국내에선 가상화폐로 마진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태로, 도박 여부를 놓고 법적 논쟁 중이다.

실제로 국내 일부 거래소가 사용자들에게 마진 거래를 제공해 재판 중이다. 만약 가상화폐의 마진 거래가 불법으로 판단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해외 거래소에서조차 마진 거래가 금지된다. 바이낸스는 고객신원확인(KYC)을 통해 확보한 사용자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바이낸스는 가상화폐 현물 거래량이 세계 최대인 거래소로 알려져 있다. 이날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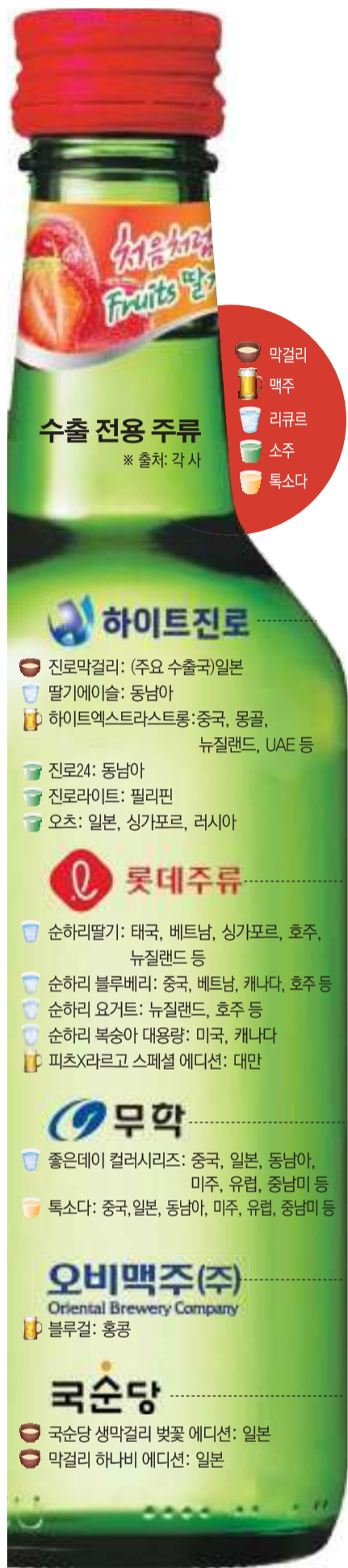
루에만 2조6874억 원(오후 3시 28분 코인 힐스 기준)이 거래됐다. 풍부한 현물 거래량과 사용자층을 기반으로 마진 거래 서비스를 내놓는다는 전략이다.

업계에선 바이낸스가 마진 거래 서비스에 뛰어 들 경우 현물을 비롯한 파생상품 시장에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바이낸스 관계자는 "국내법상 마진 거래가 어떤 법적 문제가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으로, 우선적으로 모든 한국인에게 제한을 걸어 놓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명확한 해석이 나올 경우 관련 내용을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람 기자 hura@

# 한국에선 못 사는 한국술 ‘있다’



롯데주류 ‘순하리’ 시리즈  
 하이틴로 ‘딸기에이슬’ 등  
 수출지역 과일 선호도 반영  
 홍콩 전용 오비맥주 ‘블루걸’  
 일본 시즌 한정판 ‘국순당...’  
 현지 맞춤형 수출제품 확대

주류 제조사들이 수출 지역의 소비 특성을 반영해 몇몇 국가에 전략적으로 선보인 수출 전용 제품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 제품은 토종 기업이 만든 술이지만 국내에서는 구입할 수 없다.

국내에서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과일 리큐르는 대표적인 수출 전용 제품이지만, 과일 종류는 국내 제품과 확연히 다르다. 하이틴로로는 국내에서 ‘자몽에이슬’ 등을 선보였지만 수출 제품은 자몽 대신 딸기로 대체했다. 현지 선호도를 반영한 결과다.

롯데주류 역시 과일 리큐르 ‘순하리’ 시리즈로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롯데주류는 딸기, 블루베리, 요거트, 복숭아 등의 과일을 담은 순하리를 과일 선호도에 따라 각각 다른 국가에 선보이는 글로벌라이제이션 전략을 펼치고 있다.

수출전용 주류는 리큐르에 국한되지 않고 소주, 맥주, 막걸리 등 다양한 주류로 확대되는 추세다.

하이틴로로는 4일 일본 수출 전용 브랜드 ‘진로막걸리’ 신제품 2종을 선보였다. 이번에 출시한 진로막걸리는 피치(복숭아)와 망고로 알코올 도수 4%의 750ml 페트 제품이다. 하이틴로 일본법인인 ‘진로(주)’를 통해 판매된다.

하이틴로로는 2009년 12월 오사카, 히로시마 등에서 일본 한정상품으로 진로막걸리를 첫 출시한 후 일본 내에서 호응을 얻자 이듬해 일본 전역으로 판매지역을 늘렸다. 현재 진로막걸리는 일본 막걸리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1위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한국 대표 술인 소주를 재해석한 수출 전용 제품도 눈에 띈다. 하이틴로로는 지난해 4월 필리핀에서 ‘진로 라이트(Jinro Light)’를 출시했다. 하이틴로로는 종전에도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알코올 도수 24%의 진로24(Jinro24)를 선보여 왔으며 필리핀에 선보인 진로라이트는 알코올 도수를 17도로 낮춘 제품이다.

하이틴로로는 프리미엄 소주 브랜드 ‘오초’도 일본에서 판매 중이다. 하이틴로 일본법인이 법인설립 20주년을 기념해 2008년 선보인 이 제품은 최근 수출 국가를 싱가포르, 러시아까지 넓혔다.

수출 전용 맥주 브랜드는 하이틴로, 오비맥주, 롯데주류가 모두 보유하고 있다.

특히 오비맥주가 홍콩에 선보이고 있는 수출전용 맥주 ‘블루걸’은 10년 이상 홍콩 맥주 시장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하이틴로로는 알코올 도수 8도의 ‘하이틴 엑스트라 스트롱’을 뉴질랜드,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몽골 등에 내놓았으며 롯데주류는 피치의 한정판인 피츠x라라고 스페셜 에디션에 대만에서 판매 중이다.

소주 3위 기업인 무학도 좋은데이 컬러 시리즈와 탄산주 ‘톡소다’를 앞세워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무학은 컬러시리즈를 딸기, 수박, 체리 등 3종으로 선보이고 몽골에는 딸기를, 북미에는 수박을 주력 제품으로 내세우는 등 현지 선호도를 반영해 수출국가를 정하고 있다.

전통주 기업 국순당도 해외에 우리 술을 알리고 있다. 국순당은 국내 막걸리 업계 최초로 2017년부터 일본 빗꽃 축제 시즌에 ‘국순당 생막걸리 빗꽃 에디션’을 계절 상품으로 10만 병 한정 수출하고 있다. 이 제품은 올해까지 3년 연속 완판 기록을 세웠다. 국순당은 ‘생막걸리 하나비 에디션’도 매년 7~8월 일본에서 여름철 한정품으로 10만 병 한정품으로 수출하고 있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K푸드가 인기를 누리면서 해외에서도 한식과 어울리는 우리 술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늘고 있다”며 “주류 제조사들이 현지인의 기호에 맞는 수출 전용 제품을 확대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 ‘고의성’ 부인한 코오롱생명과학 “책임지고 투여환자 추적관리”

‘종합 대책안’ 기자간담회  
 “美 임상 재개로 반전 모색”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성분 변경 과정에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향후 검찰 수사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는 4일 오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투약 환자 안전관리 종합 대책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인보사의 2액 세포 유래에 대해) 저희가 착오만 있었지만 자료 은폐나 조작 등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말했다. 인보사 주성분인 1액 세포(연골세포)를 활성화하기 위한 유전자의 전달체로 사용되는 2액 세포(형질전환된 보조세포)의 유래를 잘못 알았고, 그 사실을 모른 채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는 기존의 주장을 고수한 것이다.

식약처는 인보사의 품목허가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했던 자료를 허위로 규정하고, 세포 변동 사실을 알고도 일부러 은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5월 28일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를 결정하고, 회사를 형사고발했다. 식약처는 청문회 결과까지 종합해 전달 허가 취소를 최종 확정했으며, 코오롱생명과학은 즉시 행정소송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인보사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의 성분이 바뀐 것을 알면서도 시판을 위한 품목허가 절차를 진행했고 개발사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을 추진했는지의 진위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 대표는 2017년 7월에 이미 인보사에서 신장세포가 검출됐다는 사실을 코오롱티슈진으로부터 통보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코오롱티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환자 관리 종합 대책안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고 회견장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슈진이 유전학적 계통검사(STR) 결과를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필요한 데이터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코오롱티슈진의 실무자가 요청받은 다른 자료와 함께 본사의 STR 검사 자료를 함께 보냈고, 그대로 미쓰비시나베에 보냈을 뿐”이라며 “미쓰비시나베 역시 올해 이슈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STR 검사 자료를 받았는 지조차 몰랐다”고 주장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중단된 인보사의 미국 임상 3상 재개를 통해 반전의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FDA가 자료를 접수하면 법적으로 30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하는데 8월 말까지 휴가 기간이라 전문가들도 이 시기를 피해서 접수하는 것을 조연했다”면서 일러도 9월 이후에나 FDA의 결론을 알 수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코오롱 측은 “현재까지 1725명의 인보사 투여 환자가 장기추적조사를 위한 등록을 마쳤으며 15년 동안 임상시험 수준의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추적관리를 실시하겠다”면서 “10월까지 환자 전원의 등록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혜은 기자 euna@

## 삼복더위 앞두고 ‘머플러·온풍기’ 불티... 왜?

# 직장인 A(39) 씨는 장마철 무더위를 뚫고 출근길에 오른다. 하지만 회사에 들어선 후 선선한 에어컨 공기가 반갑기는 한 시간 남짓일 뿐이다. 시간이 지나자 팔다리에 땀이 돌고, 머리마저 아프기 시작한다. 하지만 공용 시스템인 탓에 에어컨 온도를 높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결국 스마트폰을 꺼내 온라인 쇼핑으로 카디건을 검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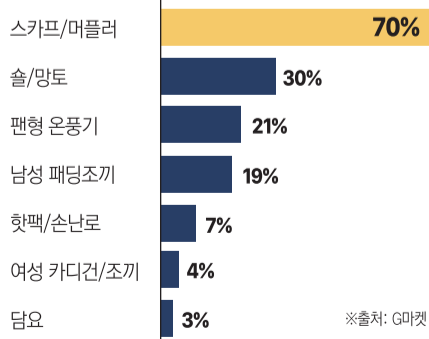
한여름 복더위에 스카프·카디건 등 난방용품이 때아닌 특수를 맞고 있다. 에어컨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오히려 추위를 피하기 위한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4일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G마켓에 따르면 지난달(2019년 6월 1~30일) 스카프·머플러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0% 치솟았다. 숄과 망토는 30% 급증했고, 여성용 카디건과 조끼는 4%, 담요는 3% 올랐다. 난방용품도 22%의 상승세를 보였다. 팬형 온풍기 판매성장률은 21%를 기록했

실내 에어컨 가동 본격화하며  
 난방병 고충에 난방용품 특수

난방용품 판매성장률

(기준: 6월 1~30일, 전년 동기 대비)



고, 남성용 패딩조끼 역시 19%로 집계됐다. 햇팩 및 손난로도 7% 더 팔렸다.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6월부터 난방용품 판매가 늘고 있는 것은 에어컨 가동에 따라 실내온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장시간 근무하는 사무실의 경우 에어컨을

쉬지 않고 가동하는 경우도 많다.

최근에는 에어컨을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닌 공동 냉방 시스템을 적용하는 곳이 많아지면서 개인별로 선호하는 온도를 설정하기도 어렵다. 이에 따라 난방병에 대한 우려도 높아졌다.

적정 실내온도에 대한 개인별 체감이다 큰 점도 난방용품 인기를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대개 냉방 온도에 대한 의견은 성별에 따라 갈리는데, 통상 여성들이 원하는 냉방 온도가 남성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들은 대개 긴팔인 슈트나 재킷을 입지만 여성은 스커트나 얇은 블라우스를 입는 경우가 많아 에어컨의 찬바람을 남성보다 쉽게 느끼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특히 에어컨을 풀가동하는 사무실이 늘고 있다”며 “추위는 개인 편차가 있기 때문에 에어컨으로 인한 추위나 냉방병 예방을 위해 때아닌 난방용품과 간절기용 카디건, 스카프 등 판매량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안센에 기술수출 반환된 한미약품

## “실패 통해 성장... R&D 신뢰 회복”

한미약품이 안센에 기술수출했던 비만당뇨치료제의 권리 반환과 관련 “글로벌 신약 창출의 길은 어렵지만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4일 밝혔다.

한미약품은 “미지의 영역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확인하고, 실패를 통해 성장하는 신약개발 과정에서 빈번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한미약품은 파트너사 안센이 비만당뇨치료제 ‘HM12525A’의 권리를 반환했다고 공식했다. HM12525A는 2015년 12월 한미약품이 안센에 기술수출한 약물이다. 계약 규모는 반환 의무가 없는 계약금 1억500만 달러(약 1230억 원)를 포함해 총 9억1500만 달러에 달했다.

2건의 비만환자 대상 임상 2상 시험을 완료한 안센은 일차 평가 지표인 체중 감소 목표치는 도달했으나, 당뇨를 동반한 비만환자에게서의 혈당 조절이 내부 기준에 미치지 못해 권리 반환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 한미약품은 “역설적으로 비만환자의 체중감량에 대한 효과를 입증한 셈”이라며 “당뇨를 동반한 비만환자에게 혈당 조절에 대한 니즈가 더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한 계기가 됐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향후 개발 방향을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약품은 “사노피와 스펙트럼, 제넨텍, 테바 등 한미약품에는 여전히 다양한 파트너사들과 실시간으로 긴밀한 협력이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 개발 중인 신약 파이프라인들도 30여 개에 달한다”며 “연구·개발(R&D)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혁신을 통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견고한 내실을 다져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혜은 기자 euna@

# 채권형 펀드·달러화... '안전자산'에 쏠리는 눈

## 하반기 투자 포트폴리오 전망

최근 한 달간 국내 채권형 펀드 1조8500억 자금 유입  
일부 증권사 "위험자산 비중, 확대보다 유지하라" 권고  
고액자산가 "달러 포함 안전자산 선호 추세 강해질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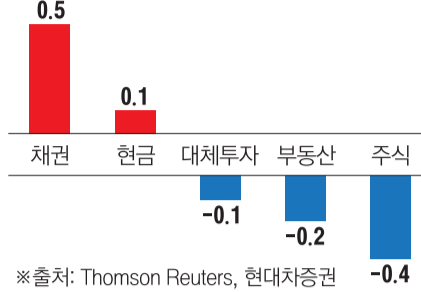
하반기 투자 포트폴리오의 무게중심이 안전자산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최근 일부 증권사들이 위험자산 비중을 확대보다 유지하라는 권고를 내놓고 있고, 고액 자산가들은 대표적 안전자산인 미국 달러화 자산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달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위험 비중을 중립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정현중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미중 무역분쟁 여파와 추가적인 경

기둔화를 막기 위해 미 연방준비제도가 선제적인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지만, 연초와 같이 유동성 확대에 따른 큰 폭의 증시 상승은 기대하기 힘들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경기가 둔화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과정인 것도 유동성만으로 추세적인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최근 국내의 자금 흐름은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 현대차증권에 따르면 최근 1개월간 전 세계 주식형 펀드에서

전월 대비 채권·현금 비중 확대  
(단위: %P, 7월 기준)



27억 달러(약 3조1571억 원)가 유출됐다. 반면 채권형 펀드에는 186억4000만 달러의 자금이 유입됐다. 국내 상황도 마찬가지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1개월간 국내 전체 주식형 펀드에서 7751억 원이 빠져나갔지만 전체 국내 채권형 펀드에서는 1조8552억 원의 자금이 유입됐다.

김중원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톰슨로이터가 글로벌 투자자 대상으로 7월 자산배분을 서베이한 결과 채권과 현금 비중이 전월 대비 각각 0.52%P, 0.13%P 확대된 반면, 주식과 부동산 투자 비중은 각각 0.42%P, 0.15%P 축소됐다"면서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도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에 대한 기대로 채권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내 고액자산가들도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미국 달러화 투자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증권이 지난달 11일부터 20일까지 전국 8개 지역 예탁자산 1억 원 이상인 고액자산가 26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고액자산가 중 64.1%는 하반기 달러채권을 포함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추세가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초 실시했던 설문조사 답변과 비교해 10%P 이상 늘어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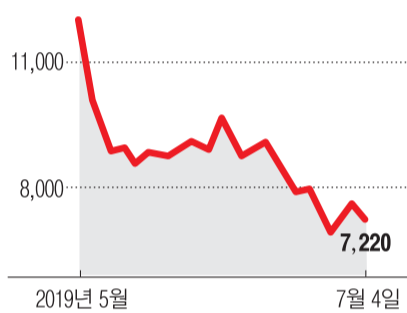
것이다. 유승민 삼성증권 글로벌투자전략팀장은 "최근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 등 여러 변수에 고액자산가들이 투자에 더욱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한미 간 금리역전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감안한다면 미국 주식과 달러채권을 포함한 달러 자산에 대한 선호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식 투자의 경우에는 '채권과 같은 주식'에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김수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주식시장의 투자 매력이 회복돼도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에 몰려있는 돈이 바로 위험자산으로 옮겨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지금처럼 위험에 대한 민감도가 높을 때 배당주와 같은 이른바 '채권과 같은 주식'의 강세는 위험자산 가격 상승에 선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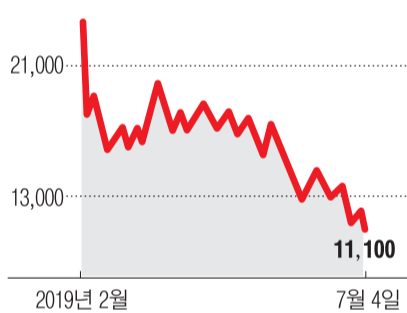
## 코스닥 새내기株 수난시대

상반기 상장 17곳 중 웹케시 등 7곳만 주가 상승  
수젠텍 -39% 등 바이오 종목은 일제히 약세

수젠텍 주가  
(단위: 원)



이노테라피 주가  
(단위: 원)



올 들어 코스닥 시장에 신규 입성한 상장사 가운데 공모가 대비 주가가 오른 곳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바이오 업종을 중심으로 침체가 이어지면서 새내기 바이오주는 일제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반기 총 17개 기업(스팩 제외)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가운데 공모가 대비 주가가 상승한 기업은 7개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4일 종가 기준 가장 주가가 많이 오른 곳은 웹케시로 공모가(2만6000원) 대비 102% 상승했다. 이어 천보(공모가 대비 88%), 컴퍼니케이파트너스(68%), 이지케어텍(44%) 순으로 오름폭이 컸다.

최근 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새내기 바이오주는 일제히 약세를 기록하고 있다. 가장 크게 하락한 종목은 수젠텍이다. 4일 종가 기준으로 공모가(1만2000원) 대비 39% 하락한 7220원을 기록했다. 이어 이노테라피(공모가 대비 38%), 압타바이오(29%), 지노믹트리(21%), 셀리드(12%) 등도 낙폭이 컸다.

'대어' 급은 아니지만, 공모금액이 1000억 원을 웃돌아 중견기업 기업공개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던 SNK도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상장 재수로 코스닥에 입성한 SNK는 공모가(4만4000원) 대비 절반도 안 되는 2만1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상반기스팩(기업인수목적회사) 상장 이 대폭 늘어난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총 10개사가 스팩 상장을 통해 증시에 입성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5개) 대비 두 배 수준이다. 대다수 스팩은 공모가(2000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이 중 한화에스비아이스팩만이 68% 급등한 상태다. 증권업계에서는 최근 스팩 상장이 다소 과열된 투자 분위기를 반영한다고 평가한다.

상반기 신규 상장기업들의 주가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하반기 IPO시장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상장을 준비하는 바이오 기업 중심으로 꼼꼼한 기술력 검증이 예고돼 투자심리 위축을 부추길 것이라 전망도 나오고

있다. 나승두 SK증권 연구원은 "연초 대비 수요 예측, 공모 청약 경쟁률과 상장 이후 수익률 흐름이 많이 변화했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하반기부터 제약·바이오 기업은 기술력 검증에 보다 많은 시간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상장예비심사 청구를 계획하고 있는 기술 성장 기업들의 상장은 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올해 코스닥 상장예비심사청구 이후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기업(이전상장, 스팩합병 포함)은 티움바이오, 엔바이오니아, 듀템바이오, 한독크린텍 등 총 28개로 집계됐다.

이정희 기자 lj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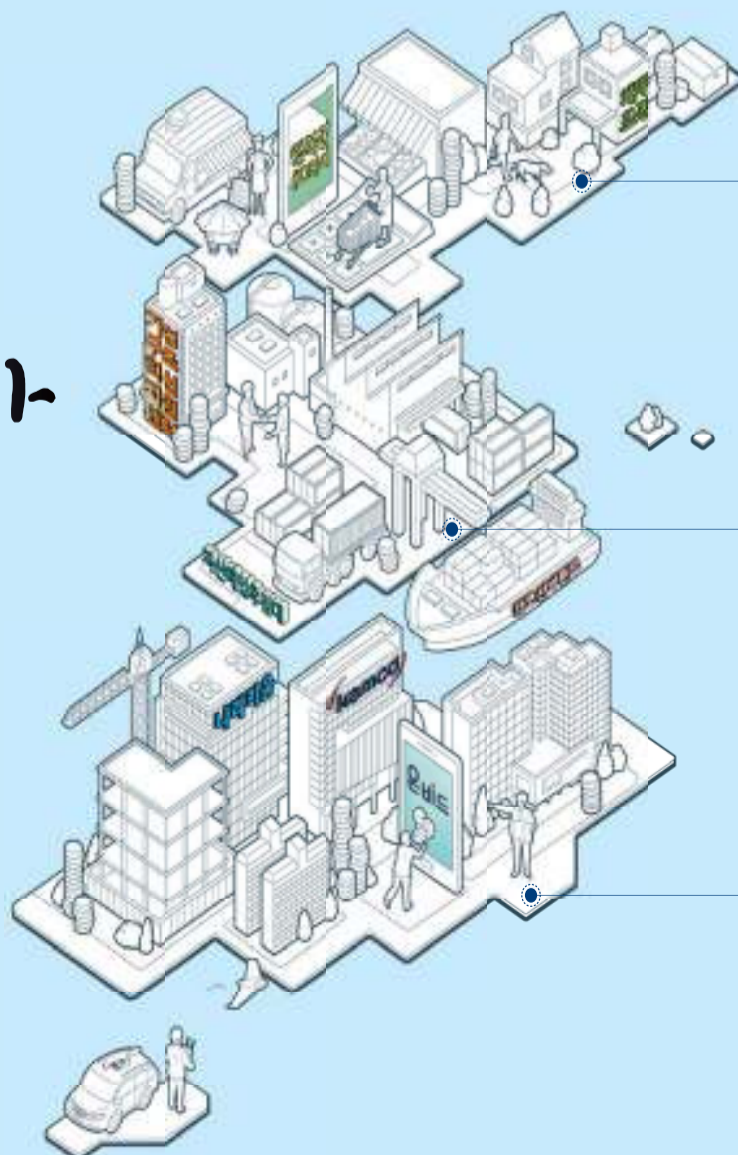
가계·기업·공공자산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높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치를 높입니다

금융부채로 어려운 가계에는 희망을  
재기를 꿈꾸는 중소기업에게는 기회를  
공공자산의 잠재된 가치를  
캠코가 만들어갑니다.

캠코는 가계·기업·공공자산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공적자산관리전문기관입니다.

대표전화 : 1588-3570



### 가계

**금융취약계층 재기 지원**  
개인연체자 채무부담 경감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일원화  
창업실패자 재기 지원  
행복잡(JOB)이 취업지원

### 기업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 운영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DIP금융(회생기업 자금지원)  
캠코선박펀드 운영

### 공공

**저활용 국·공유재산 가치창출**  
유류 저활용 국·공유재산 관리  
노후 국·공유재산 개발  
온비드(OnBid) 운영

# ‘식구’ 끼리 밀고 끌고... 외국합작사 외형 성장

## 중견그룹 일감돋보기

### 폴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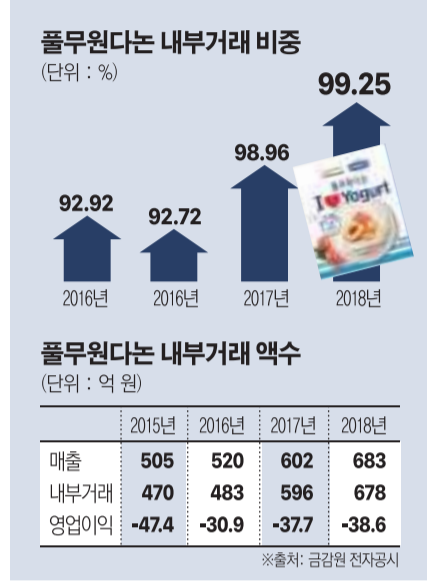
폴무원그룹은 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인 폴무원을 비롯해 총 27곳의 계열사를 거느린 종합식품 기업이다. 폴무원식품이 주력 사업회사로, 계열사들 간 거래를 통해 외형 성장을 돕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 밖에 푸드머스와 폴무원농축, 울기홀푸드, 폴무원다논 등을 보유 중이다.

현재 폴무원에는 폴무원다논과 폴무원샘물 등 외국 자본이 가세한 합작회사들이 있다. 폴무원다논은 프랑스 다국적 기업 다논(Danone)과, 폴무원샘물은 네슬레와 손잡았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중 폴무원다논의 내부거래 비중이 10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82억 7639만 원의 매출액 중 내부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99.25%로, 또 다른 합작사 폴무원샘물이 1%대인 것과 대조적이다.

2008년 설립된 폴무원다논은 유제품 수입과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2012

폴무원다논, 佛다논 가세 후 1년 만에 내부거래 10배 쏙 폴무원식품과 유통계약 통해 6년 만에 매출 280% 급성장



년 프랑스 다논의 지분 참여로 지분 절반 씩을 나눠 가졌다. 2012년 당시 회사의 내부거래액은 13억 원 수준이었지만 다논이 가세한 후인 2013년 149억 원으로 늘었다. 그렇게 2012년 243억 원이던 매출도 지난해 3배 가까이 불어나며 외형이 대폭 성장했다.

폴무원다논의 실적은 책임지는 곳은 폴무원식품이다. 폴무원식품과 유통계약을 통해 안전한 매출처를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여전히 영업 손실을 기록 중이다. 지난해 폴무원다논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13.39% 증가한 682억 7639만 원, 영업손실은 2.28% 불어난 38억 5658만 원이다. 당기순손실도 40억 원에 달한다. 거듭되는 적자 속에 지난해 프랑스 다논의 지분은 30.7%까지 낮아졌다.

이 밖에도 일부 계열사들이 높은 내부거래 비중을 보이고 있다. 폴무원식품의 면류 사업부문이 물적분할해 설립된 피피이 씨음성생면은 내부거래 비중이 97%로 집계됐다.

식품 물류 대행을 도맡는 엑소후레쉬물류의 경우 지난해 79.46%에 달한다. 80%

가 넘었던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수치지만 여전히 높은 편이다. 이들 계열사들 역시 폴무원식품이 거래 상당수를 책임지고 있다.

폴무원은 최근 합작회사를 제외한 비상장사 계열사 지분 전량을 보유함으로써 주사 체제 확립에 나섰다. 오너가 아닌 회사가 계열사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규제에서도 한발 물러난 상태다.

남승우 폴무원 대표이사 역시 지난해 1월 33년의 오너 경영을 마무리하고 그룹을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했다. 남 전 대표는 폴무원 지분 51.84%를 보유 중이다.

한편 남 전 대표는 본인이 소유한 폴무원 지분을 담보로 울기홀푸드를 꾸준히 지원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울기홀푸드는 남 전 대표의 아들 성운 씨의 개인회사다. 지난해 기준 남 전 대표가 울기홀푸드에 차입 명목으로 지분을 담보한 금액은 382억 800만 원이다. 지난해 33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울기홀푸드는 거듭되는 적자에도 자금 지원 속에 운영이 되고 있다.

고대영 기자 kodae0@

## 자연과환경-주노빌 CO2 저장블록 맞손

### 기술개발로 환경문제 개선

자연과환경은 4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문업체인 주노빌과 ‘이산화탄소(CO<sub>2</sub>) 영구저장 콘크리트 블록 기술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배출가스 직접반응을 통한 이산화탄소(CO<sub>2</sub>) 포집 및 대량 활용 저장기술을 이용해 공장·발전소 배출가스 속 이산화탄소를 통해 생성된 포집물을 자연과환경 블록제품의 재료로 활용하는 기술을 연구할 방침이다.

자연과환경 관계자는 “이산화탄소를 영구저장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며 “탄소배출권 확보와 기후환경 개선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대원 기자 leedw@

## 153억 수혈 모베이스... 전장사업 속도

### 국내외 자동차 램프사업 등 신성장동력 확보... 사업다각화

휴대폰 케이스 제조기업 모베이스가 신규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신규사업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긍정적인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모베이스는 전일 이사회를 열고 계열사인 산일테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63억 원을 수혈기로 했다. 이와 함께 90억 원 규모의 금전 대여도 결정했다. 유증과 대여금으로 마련된 153억 원은 베트남 내 자동차 램프 사업을 위한 설비투자와 국내 서연오토비전 김천공장의 자동차 램프 사업부 인수에 쓰일 계획이다.

모베이스는 금형과 사출 성형 기술을 기반으로 삼성전자 등 휴대폰 제조업체의 케이스를 조립품 형태로 제작해 납품한다. 1999년 설립됐으며 2010년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

모베이스는 전방산업인 휴대폰 시장의 성장 둔화에도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내고 있다. 최근 4년간 성적을 보면 매출은 2016년 연결기준 2854억 원에서 지난해 3753억 원으로 성장했다.

재무안정성 역시 뛰어나다. 부채비율은 최근 수년간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

### 모베이스 재무제표 추이

(단위: 억 원, %)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분기
매출	2,854	3,208	3,753	973
영업익	344	234	231	57
부채비율	19.6	21.0	33.0	35.0
유보율	2,542.8	1,966.2	1,788.0	1,835.1

만 올해 1분기 기준 35%에 불과하다.

급격한 휴대폰 시장 변화 속에 모베이스는 2015년 썬스타 인수를 시작으로 사업다각화에 나서고 있다. 썬스타는 산업용 자동 자수기와 재봉기 제조업체로 40년 이상의 업력을 가진 회사다. 또 2018년에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회생절차에 있던 산일테크를 인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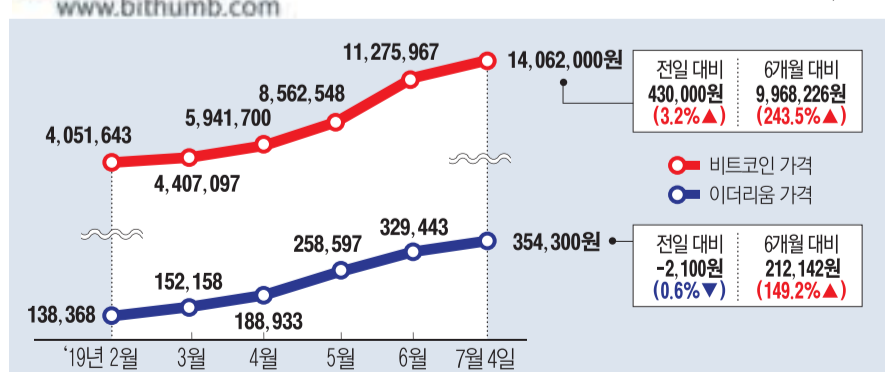
시장에서는 모베이스의 사업 다각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키움증권 장민준 연구원은 “산일테크가 실적 기여는 크지 않겠지만 향후 전자기 시장의 성장에 따른 관련 부품 수주 확대로 성장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모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재무안정성에 본업의 성장과 신규사업 모멘텀까지 긍정적인 상황에서 주가 상승 모멘텀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 bithumb 빗썸

### 빗썸 지수 (2019년 7월 4일 18:00, KST)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비트코인캐시	499,700	4,700 (0.9%▲)	모네로	107,100	-1,700 (1.6%▼)
리플	479	-5 (1.0%▼)	비트코인골드	30,700	-650 (2.1%▼)
라이트코인	148,700	-100 (0.1%▼)	이더리움 클래식	9,370	-80 (0.8%▼)
대시	201,400	3,600 (1.8%▲)	퀀텀	6,080	-10 (0.2%▼)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 모두를 위한 SK증권 로보어드바이저



SHAKE는 고도화된 알고리즘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 맞춤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로보어드바이저입니다. {by 퀴터백}

※ SK증권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에게는 충분히 그러한 설명을 듣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스타트업 매매수수료 (주식) 0.15% + 1천원 ~ 0.05% + 1백만원 (거래금액별 차등, 세부 수수료들은 당사 홈페이지 참조)  
※ 로보어드바이저가 고객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1차 테스트버드 통과  
※ 테스트버드 통과가 해당 알고리즘의 품질이나 수익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고객센터 1588-8245



# 수도권도 '미분양 공포' 확산

(경기·인천)

5월 1만여 가구 5개월새 2배 ↑  
인천·파주 운정 청약 잇단 미달  
높아진 청약 문턱·고분양가 유지  
밀어내기식 공급 과잉 약재 겹쳐



수도권 미분양 주택 현황  
(단위: 가구, %, 2019년 5월 말 기준)

	2019년				전월대비	
	12월	3월	4월	5월	증감	증감률
수도권	6,319	10,529	9,445	10,218	773	8.2
서울	27	770	292	178	-114	-39.0
인천	1,324	2,454	2,105	3,478	1,373	65.2
경기	4,968	7,305	7,048	6,562	-486	-6.9
계	58,838	62,147	62,041	62,741	700	1.1

지방에 이어 수도권까지 미분양 공포에 휩싸였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미분양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을 제외한 인천과 경기지역에서 미분양 물량이 늘고 신규 분양 단지 역시 실패하지 않은 청약 성적표를 받아들이고 있어서다.

4일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현재 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1만218가구로, 전달(9445가구)보다 8.2% (773가구) 늘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6319가구였던 것이 5개월여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 중 경기지역 미분양은 6562가구로 절반을 넘고 인천도 3478가구에 달한다. 인천지역의 미분양은 2017년 4월(3703가구) 이후 가장 많은 물량으로 전달 대비 65.2%나 급증했다.

특히 약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의 경우 경기지역이 5월 말 기준 2364가구로 경남·경북·충남 등 지방에 이어 많아 우려를 낳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미분양 증가의 원인으로 공급 과잉 상황에서 지난해 말 청약제도 개편으로 규제가 심화됐을 뿐 아니라 건설사들이 침체한 시장 분위기에도 분양가를 높게 책정한 때문이

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 '지금 아니면 더 안 된다'는 생각으로 건설사들이 밀어내기 분양을 계속하는 것 역시 이런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파주시 운정3지구만 하더라도 올해 4000가구 정도의 분양이 예정돼 있다. 이곳은 GTX-A노선의 연장이 확정되면서 관심을 받았지만 고양시 창릉동 일대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분위기가 급격히 나빠졌다. 때문에 건설사들이 12년 만에 동시분양하는 등 분위가 띄우기에 나섰지만 역세권 단지들마저 미분양 우려를 씻지 못하고 3개 단지 모두 청약에서 모집가구를 채우지 못했다.

다른 지역도 분양하는 단지들마다 성적이 시원찮은 상황이다.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서희건설이 경기 화성시남양읍에서 분양한 '화성시청역 서희스타힐스 1·2·3단지'는 일반분양 686가구 모집에 552명이 청약하는 데 그쳐 미분양 단지에 이름을 올렸고, 경기 오산시 원동에 공급된 '오산원동 한양수자인' 역시 1·2순위 청약에서 60가구 모집에 단 9명만 신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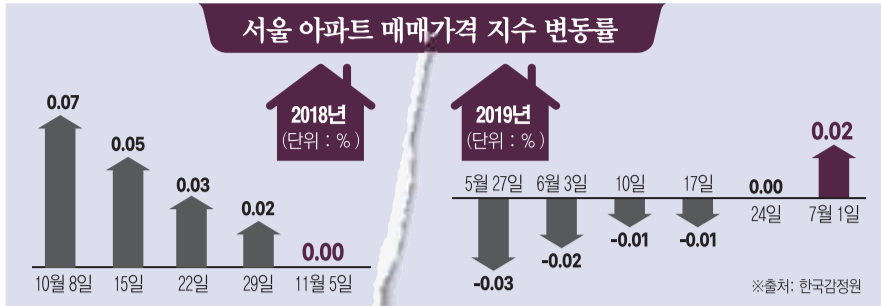
이상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들 단지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속하지 않아 중도금 대출도 가능하고 전매 제한도 6개월로 짧지만 수요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미분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인천의 미분양 주택 추세 역시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2기 신도시 중 한 곳인 검단신도시의 경우 공급 과잉에다 인근 계양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는 등 약재가 겹치면서 분양에 애를 먹고 있다.

인천은 지난 3년간 입주 물량이 5만 6736가구에 달한 데다 최근 1년간 2만 6331가구의 신규 분양 물량을 쏟아냈다. 이에 비해 인천시 거주인구는 295만 4642명에서 1년 새 2129명 줄었다.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물량 역시 미분양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검단신도시에는 5월에만 7개 아파트 단지 8067가구가 공급됐는데, 이 중 21%에 해당하는 1700가구가량이 미분양 상태다. 이곳에는 앞으로 62개 단지 6만 6396가구 추가 공급을 앞두고 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 다시 꿈틀대는 서울 아파트값 34주 만에 0.02% 상승 반등

강남 3구가 상승세 이끌어  
전국 매매가도 하락폭 둔화

감정원 관계자는 "대출 제한 및 세제(종부세·양도세) 강화 등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와 더불어 추가 규제 가능성(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으로 관망세가 여전하지만 일부 인기 재건축 및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따라붙으면서 서울 집값을 끌어올린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난주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세를 멈춘 데 이어 이번 주에는 상승 반등하면서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한국감정원이 7월 1주(7월 1일 기준) 아파트 주간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6%, 전세가격은 0.07% 하락했다.

하지만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하락폭이 줄었다. 수도권은 -0.04%에서 -0.02%로 둔화됐고, 서울은 지난주 보합세(0.00%)에서 이번 주 0.02%로 올라 상승 전환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오른 것은 지난해 11월 첫째주 이후 34주 만에 처음이다.

실제로 강남(0.05%)·송파(0.04%)·서초구(0.03%) 등 강남권이 서울 전체에 아파트값 상승세를 이끌었다. 강남4구에 속하는 강동구(-0.04%)는 입주 물량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강남권 외에 양천(0.06%)·영등포(0.06%)·용산(0.05%)·서대문구(0.04%)도 재건축·재개발 기대감이 있는 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뚜렷했다.

이신철 기자 camus16@

##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의무 공개

내년 5월부터 확대 적용

이상 규모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반드시 관리비를 주민과 외부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지금까지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 이면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 주상복합 건물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100가구 이상의 중소 규모 공동주택에도 관리비 의무가 부과된다.

내년 5월부터 100가구 이상 모든 공동주택은 관리비 명세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0년 5월부터 100가구

이신철 기자 camus16@

### 부영, 광양목성지구 아파트 첫삽

부영그룹이 전남 광양목성지구에 6500여 가구의 아파트 단지를 짓기 위한 첫 삽을 떴다. 부영그룹은 전남 광양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에서 광양목성지구 도

시개발사업 및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기공식을 열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신명호 회장직무대행을 비롯해 정인화 국회의원, 정현복 광양시장, 김갑섭 광양경제자유구역청장 및 시민,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종근 부영그룹

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신명호 회장직무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목성지구에 6500여 가구의 부영아파트 건립은 광양읍에 인구를 끌어들이는 효과는 물론 광양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 화제의 신간

1천만 관객 대종상 수상 영화 <관상>의 작가  
백금남이 그려낸 거대한 한 폭의 구도화

# 십우도

백금남 장편소설

## '소를 통해 인간 본성을 내다보다'

한 개인의 정신적 발전 과정을 불교적 관점으로 추적한 역사작이다. - 이청춘 소설가

제대로 갖추어진 소설로서의 문체와 문장력, 우선 재미있게 끌고 가는 힘이 있다. - 정규용 문학평론가

언어를 잘 꿰어 갈무리한 문체의 특성과 백정의 한과 사무친 실용의 응어리를 불교적 사유와 순환의 구조 속에서 감동으로 말해 주고 있다. - 김선학 문학평론가·교수

한(恨)이라는 감성적인 이야기로 끝낼 수 있는 백정의 이야기를 도(道)로 승화시킨 점이 아마 가장 훌륭한 점이 될 것이다. - 서정기 문학평론가·교수

www.muhan-book.co.kr | muhanbook7@naver.com | Tel. 02-322-6144 | Fax. 02-325-6143 | 무한





# ‘천사’의 프러포즈, 눈부신 ‘다이아몬드’

## 올댓 트립

### 섬을 달리다 ③ 천사대교·고금대교

배 타고 바다를 가로질러 한참을 간 후에야 닿을 수 있었던 그 섬들이 주말 인기 여행지가 됐다. 섬과 섬을 연결하는 다리가 놓이면서 당일치기나 1박 여행 등 가벼운 여행이 가능해진 것이다. 사람 손 타지 않은 곳이어서 자연 그대로의 느낌도 간직하고 있다. 새로 놓인 다리마저 꼭 봐야 하는 볼거리다.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차를 타고 떠나는 매력적인 섬 여행지를 추천한다.

◇자동차로 즐기는 4색 섬 여행. 신안 암태도-팔금도-안좌도-자은도 = 요즘 가장 ‘핫한’ 관광지라면 전남 신안의 암태도와 자은도, 팔금도, 안좌도다. 압해도와 암태도를 잇는 천사대교가 개통하면서 관광객이 몰리고 있다. 과거 네 섬에 닿으려면 압해도 송공리선착장에서 배로 25분쯤 가야 했지만, 이제 목포와 연륙교로 이어진 압해도부터 다이아몬드제도의 관문인 암태도까지 차량 여행이 가능하다. 암태도와 자은도, 팔금도, 안좌도가 모두 다리로 연결됐다.

천사대교에는 공사비 5814억 원이 투입됐다. 2010년 9월부터 공사 기간만 10년 가까이 걸렸다. 총 길이 10.8km, 너비 11.5m인 왕복 2차로 다리가 압해읍 송공리와 암태면 신석리를 잇는다. 현수교와 사장교를 합친 외관이 시선을 끈다. 현수교는 양쪽 교각에서 케이블을 늘어뜨리고 다리 상판을 연결하는 구조로, 영종대교가 대표적이다.

높은 교각 양쪽에서 케이블을 내려 다리를 지탱하는 사장교는 인천대교를 떠올리면 된다. 천사대교는 국내 다리 중 유일하게 현수교와 사장교를 함께 적용했는데, 이는 바닷물의 흐름과 수심, 선박 이동 동선 등을 고려한 결과다. 바다 위 10.8km를 가로지르는 도로 중 교량 구간은 7.2km. 인천대교와 광안대교, 서해대교에 이어 국내에서 네 번째로 길다. 주탑(195m)은 천사대교 상징물로, 마름모꼴인 신안의 지형을 본떠 다이아몬드제도를 형상화했다.

신안암태도송공리매항비(전남기념물 223호)도 유명하다. 매항비는 해안 지역에서 보이는 마름모꼴 모양이다. 바닷가에 향나무를 묻고 1000년 뒤 다시 떠오른 향나무로 향을 피우면 마름모가 나타난다고 한다. 장고리에서 동쪽으로 2km 떨어진 바닷가에 있는 매항비는 1405년에 세웠다.

천사대교가 개통하며 기동삼거리에 있는 벽화가 이슈가 됐다. 자은면과 팔금면, 안좌면이 갈라지는 기동삼거리 조그만 농약사 담벼락에 예쁜 애기동백나무가 고개를 내민다. 이 나무를 머리 삼아 환하게 웃는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이 담벼락에 그려졌다. 처음에는 할머니 얼굴을 그렸는데, 서운해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전해 들은 신안군이 애기동백나무를 한 그루 더 심고 할아버지 얼굴을 그려 부부 벽화가 탄생했다. 이 벽화를 보고 오른쪽으로 향하면 자은도, 왼쪽으로 가면 팔금도와 안좌도다.

암태도에서 중앙대교를 건너 내려오면 팔금도다. 새 여덟 마리가 모여 있는 듯한 팔금도는 천사대교를 건너 만나는 네 섬 가운데 가장 작다. 인구가 가장 적다. 섬은 차분하고 조용하다. 시간이 정지된 듯한 마을 풍경이 고즈넉하다.

팔금도에서 신안1교를 건너면 안좌도다. 이 섬에서 꼭 가봐야 할 곳은 읍동리에 있는 신안 김환기 고택(국가민속문화재 251호)이다.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김환기 화백은 안좌도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다. 1970년 미국 뉴욕에 살던 김 화백은 김광섭의 시 ‘저녁에’를 보고 가슴이 먹먹해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고택은 1910년 김 화백 아버지가 백두산에서 가져온 나무로 기공 있게 지었다. 고택 건너편 마을에는 김 화백의 그림이 벽화로 그려졌다.

안좌도의 또 다른 명물은 박지도와 반월도를 잇는 퍼플교다. 박지도에서 목포까지 걸어가는 것이 소망이던 김매금 할머니의 꿈을 이루기 위해 만든 나무다리다. 보라색 꽃과 농작물이 풍성해 퍼플교라 불린다. 암태도에서 은암대교를 건너면 네 섬 가운데 여행



① 암태도 쪽에서 바라본 천사대교. ② 고금도는 3개의 다리를 통해 육지와 주변 섬과 연결된다. ③기동삼거리 벽화. ④ 이순신 장군을 모시는 충무사.

### 신안 암태도·팔금도·안좌도·자은도

마름모꼴 지형 본떠 ‘다이아몬드제도’ 국내서 네번째로 긴 천사대교 건너면 기동삼거리 담벼락 동백나무 머리 삼아 환하게 웃는 할머니·할아버지 벽화가 안좌도 넘어가면 김환기 화백 고택도

### 완도 고금도

강진서 고금대교 건너 77번국도 달리면 산림욕 하기 좋은 덕암산꽃누리생태공원 이순신 장군 숨결 느껴지는 충무사 둘러 친환경 인증 해수욕장 신지명사십리로

객이 가장 많은 자은도다. 섬 이름은 ‘자애롭고 은혜롭다’는 뜻이다. 임진왜란 때 명나라 이여송 장군을 따라온 장수 두사촌이 작전에 실패하자, 처형될 것이 두려워 자은도로 숨어들었다. 다행히 생명을 건져 보답하는 마음으로 부른 이름이라고 한다.

◇배 타지 않고 떠나는 완벽한 섬 여행. 완도 고금도 = 크고 작은 200여 개 섬이 있는 완도군은 연륙교 섬 여행을 즐기기에 제격이다. 완도군에서 큰 섬인 완도, 고금도, 신지도, 조약도(약산도)는 다리로 연결

돼 배를 타지 않고 쉽게 이동한다.

그중 완도군에서 두 번째로 큰 고금도는 세 다리로 육지 혹은 다른 섬과 이어진다. 2007년 강진군과 고금도를 잇는 고금대교가 개통함에 따라 고금도는 육지에서 차로 여행할 수 있는 섬이 됐다. 1999년 개통한 약산연도교가 고금도와 약산면 조약도를 잇고, 2017년 개통한 장보고대교가 고금도와 신지도를 잇는다. 이로써 고금도는 섬이지만 섬 같지 않은 땅이 됐다. 고립된 섬이 아니라 어디로든 연결되는 열린 섬이다.

고금도는 강진군 마량면과 완도읍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한다. 장보고대교가 완공되며 고금도와 신지도 사이 바다에서 끊긴 국도77호선이 이어졌고, 이 길을 따라 자동차로 강진과 완도, 해남을 두루 여행할 수 있다.

강진에서 고금대교를 건너면 바로 고금도에 이른다. 고금도를 돌아보는 길은 단순하다. 고금대교 남단에서 국도77호선을 따라가면 덕암산꽃누리생태공원도 만난다. 산자락에 금잔디, 수선화, 구절초 등이 소담하게 피어나고 산책로도 있다. 꽃밭 아래쪽에는 키 큰 나무가 울창하다. 나무 사이로 각각각색 돌탑이 늘어서 볼거리를 더한다. 군데군데 평상이 놓여 산림욕을 즐기기에 그만이다.

덕암산 자락에서 내다보는 고금도는 섬이 아니라 농촌 같다. 고금도는 여촌과 농촌이 공존하는 곳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이 많다. 특산물도 유자, 매생이, 굴 등 농산품과 수산물도 두루 포함된다. 지방도830호선을 따라 달리면 그 특색을 느낄 수 있다. 내륙에서는 농촌 색이 짙다가 해안 쪽으로 갈수록 여촌 정취가 강해진다.

이런 지형적 특성은 이순신 장군이 1598년 삼도수

군통제영을 고금도로 옮기는 데 한몫했다. 고금도가 왜군을 방어하기에 군사적·지리적 요충지인 동시에, 내륙에 농토가 많아 군량미 확보에도 용이했기 때문이다. 이순신 장군은 고금도에서 명나라 진린 장군과 연합 전선을 펴 노랑해전을 승리로 이끌며 정유재란을 마무리지었다. 노랑해전에서 순국한 이순신 장군의 유해는 이곳 월송대에 임시 안장했다가 충남 아산으로 옮겨졌다.

월송대 앞으로 충무사가 있다. 원래 이 자리에는 진린 장군이 관우 장군을 모시고 승전을 기원한 관왕묘가 있었으나, 일제강점기에 훼손되고 광복 후 이순신 장군을 추모하는 충무사를 세웠다. 충무사에서는 해마다 양력 4월 28일에 충무공탄신제를, 음력 11월 19일에 순국제를 지낸다. 월송대와 충무사 일대는 완도 묘당도 이충무공유적(사적 114호)으로 지정·보호된다.

고금도 국도77호선 남쪽 끝은 장보교대교로 이어진다. 장보교대교를 건너면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으로 유명한 신지도다. 백사장과 울창한 송림이 있는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블루플래그’를 획득했다. 블루플래그는 환경, 수질, 안전 등 여러 기준을 만족시킨 친환경 해수욕장에 주는 국제 인증이다.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은 산소음이온이 풍부하고 수질 상태가 좋으며, 전체의 자연경관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다.

신지도에서 신지대교를 이용하면 완도군의 본 섬, 완도에 이른다. 신지대교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완도 청해진 유적(사적 308호)이 자리한다. 해상왕 장보고와 그가 설치한 청해진 유적을 살펴볼 수 있다. 완도에 딸린 작은 섬 장도는 원래 간조 때만 출입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장도교를 통해 언제나 자유롭게 방문한다.

김소희 기자 ksh@

# “살아있는 한 삶은 미완성 견디며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성숙해지죠”



이규리 시인은 재산처럼 여기는 메모노트에 적어둔 글들을 토대로 시를 짓거나 아포리즘으로 옮겼다. ‘뒷모습’처럼 시로 쓰였던 몇몇 주제는 아포리즘으로 펴내며 더 명징하게 작가의 의도를 드러냈다.



## ‘돌려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시의 인기척’ 아포리즘 펴낸 이규리 시인

“시인은 시를 품은 인식으로 산다”고 말하는 이규리(李桂里·64) 시인. 그런 그에게 가장 구체적이고 확실한 인식을 심어준 말은 바로 베트남의 승려이자 시인인 틱낫한의 ‘종이는 종이 아닌 것으로 이루어졌다’이다. 종이는 종이 그 자체가 아닌 물, 나무, 바람, 햇빛 등 수많은 요소로 이뤄졌다는 것. ‘종이’와 ‘종이 아닌 것’이 같다는 걸 알고 난 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 이렇듯 시로써 다 말하지 못했던 깨달음을 모아 그는 ‘시의 인기척’과 ‘돌려주시지 않아도 됩니다’에 담았다.

시집 ‘최선은 그런 것이예요’ 이후 5년 만에 펴낸 이규리 시인의 새 책은 시가 아닌 아포리즘(격언, 경구 등의 글귀)으로 채워졌다. 책에는 오랜 세월 시인이 삶과 자신에게 던졌던 솔한 질문과 대답의 흔적들이 녹아 있다. 아포리즘의 형태를 가져왔지만, 책을 읽다 보면 시인다운 표현들이 눈에 띈다. 어쩌면 시를 통해서도 같은 의미를 전할 수 있었으리라. 특별히 아포리즘으로 일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시라는 건 굉장히 압축되고 비유되고 또 감춰져 있어서 정작 저자의 의도를 알아차리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에 비해 아포리즘은 말하려는 바를 더 논리적으로 드러낼 수 있죠. 그동안 살면서 제가 품었던 궁금증이나 질문들은 책과 사람을 통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나와 같은 고민을 가진 독자가 있다면 내가 정리한 답이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했죠. 그런 이야기를 보다 명징하게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에 아포리즘이 적합하다고 봤어요.”

### 뒤를 바라보며 지나는 삶

독자에게도 도움을 주는 글들이겠지만, 그는 집필 기간 무엇보다 자신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책을 위해 단기간에 글감을 찾아 모은 것은 아니다. 지난 10년 동안 메모노트에 적어둔 글들을 바탕으로 3년 정도 엮는 과정을 거쳤다. 아주 오래전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 도 함께할 메모노트는 그에게 ‘재산’과 같단다.

“메모노트는 늘 가지고 다녀요. 노트 중간에 간지를 끼우고 절반은 제 생각이나 글을 쓰고, 나머지 절반은 독서나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얻은 것들을 적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좋은 글인데 이게 내 생각인지, 다른 데서 들은 이야기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쓴 메모노트 내용 중 시로 탄생한 것도 있고, 아포리즘으로 풀어낸 것도 있죠.”

이규리는 서두 ‘작가의 말’에 “오래전부터 메모되었던 글들이 모였을 때 그 흔적이 아파지고 견디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썼다. 많은 것을 견디며 살았다는 그는 책에서 ‘견디고 있다’와 ‘지나고 있다’는 두 말을 ‘결혼시키고 싶다’고 표현했다. 그 독특한 문장이 지닌 의미를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어느 날 누가 ‘어떻게 지내?’라고 물었는데 ‘견디고 있다’고 대답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곰씹어보니 견디다고 하면 내가 뭐가 수고했다는 게 포함된 말 같은 거예요. 그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없을까 생각하니 ‘지나고 있다’가 떠오르더라고요. 물론 둘 다 좋고 아름다운 말이예요. 이런 말들을 새기고 산다면 경멸을 느끼는 순간이 찾아와도 잘 견디고 지날 수 있죠. 그 때가 지나면 언젠가 말할 기회가 찾아오는데도 우리는 늘 성급해서 먼저 얘기해 버리고 후회를 하잖아요. 견디고 지나며 살아갈 때 인간은 성숙해지고, 세상은 평화로우리라 생각하니 두 말이 참 아름답게 느껴져 짝지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누군가가 견디고 지나는 모습은 걸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처럼 그는 보이지 않는 ‘뒤’라는 존재에 대해 오래전부터 고찰했고, 그 생각들은 이번 아포리즘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돌려주시지 않아도 됩니다’의 3부에는 ‘뒷모습은 정확함보다 정직함에 가깝다’는 문장이 나온다. 그는 특히 시인이라면 걸이나 앞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 그 내면과 뒤의 모습까지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우리는 즐거움을 느끼죠. 그 음식을 내놓기 위해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수고했는지까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쩌면 그날 해고된 직원이 식당 뒤에서 울고 있었을지도 모

“

10년간 메모노트에 적어둔 글  
다시 3년간 추리고 엮어 재탄생  
삶의 뒷면까지 다가가도록 노력

어떤 결론을 냈을 때 ‘정답일까?’  
다시 의문하면 더 많은 것 깨달아  
완성이란 ‘과정 속 멈추는 지점’

”

르는데 말이죠. 단순히 잘 차려진 식탁만 봐서는 헤아릴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글을 쓰는 사람, 특히 시인은 보이지 않는 삶과 세계까지 살피고 이해해야 해요. 그런 점에서 앞보다는 뒤, 밝음보다는 어둠, 반복보다는 공복 쪽에 서서 바라보려고 노력합니다.”

### 완성은 과정이 머물다 멈추는 지점

이규리 시인은 불안(不安), 불리(不利), 부족(不足) 등 ‘아니 부(不)’를 지닌 단어들도 가까이하고 좋아한다. 그렇다고 ‘부’가 들어간 단어 모두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부정(不正), 불법(不法), 불신(不信) 등은 멀리한다. 어떤 기준으로 단어들의 호불호가 나뉘는지 고민하던 그는 결국 해답을 찾았다.

“칼날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불안, 불리, 부족 등은 내가 불편하고 손해를 보기 때문에 칼날이 나를 향하지만 부정, 불법, 불신 등은 칼날이 상대를 가리키고 다치게 하죠. 그걸 발견한 뒤부터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면 칼날의 방향을 따져보고 판단해요.”

그렇게 인생을 나아가고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나가는 동안에도 고민과 물음은 끊이지 않았다. 젊은 시절과 달리 점이 있다면 그 해답을 고요히 스스로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연륜이 생겼다는 것. 자신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삶을 살아낸 중장년이라면 대부분의 문제는 자기 인생 안에서 답을 얻을 수 있으리라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린 답은 모두 정답일까? 그는 몇 번이고 다시 묻고, 부정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가 어떤 답을 내렸을 때, ‘그래 이게 맞아’라고 끝내기보다는 ‘과연 내 답이 맞을까?’라고 의문했을 때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어떤 일을 할 때도 ‘완성했다’고 여기지 않으려 합니다. 화가 알베르토 자코메티는 마지막 초상화를 그릴 때 완성에 가까운 작품인데도 18일 동안 지우고 또 지우며 다시 그렸다고 해요. 그렇게 완성이란 무언가를 계속하는 과정 속에서 멈추는 지점일 뿐이지, 완벽한 완성은 없다고 봐요. 같은 맥락에서 우리 인생 역시 죽음에 이르렀을 때야 비로소 완성이랄 수 있지 않을까요? 살아 있는 한 삶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고,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의문하고 부정해야 합니다.”

글/이지혜 기자 jyelee@

사진/오병돈 프리랜서 obdlife@gmail.com



하나금융그룹



따져 볼수록 원큐  
 제출서류 필요 없고, 직업 상관 없고  
 중도상환 해약금도 없고

따질 필요 없이 원큐  
 누구나 3분 한도조회 가능

이제 대출도 원큐로 통한다!

쉽고 빠른 모바일 신용대출  
**하나원큐신용대출**



한도조회  
 바로가기



손님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KEB 하나은행**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상품 설명서 또는 KEB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거나, 고객센터(1599-11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은 2020년 5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 준법감시인 심사필 2019-광고-2967호(2019.06.10) / CC브랜드190604-0023

# 미얀마 금융 인프라 구축 공들이는 허인

(KB국민은행장)

### 주택금융 노하우 전파...2017년 MOU 체결 후 긴밀한 협력 방한한 우한조 건설장관 만나 “인프라 금융 적극 지원” 밝혀 한국어학당·마을센터 운영, 韓기업 취업지원 등 사회공헌도

허인 은행장이 KB국민은행의 주택금융 노하우를 미얀마에 전파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미얀마 정부 고위급을 직접 만나는 등 미얀마와 국민은행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총중히 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허 행장은 4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우한조 미얀마 건설부 장관과 우판신 주한미얀마 대사 등 미얀마 정부 고위급을 만나 주택금융 관련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허 행장은 환영사를 통해 “미얀마 정부의 주택금융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며 “국민은행의 최대 강점인 주택금융 및 인프라 금융 부문에서 미얀마 건설부와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미얀마 건설부와 2017년 2

월 미얀마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지원 및 미얀마 주택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MOU를 체결한 바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 5년간 총 6회에 걸쳐 한국과 미얀마에서 미얀마 건설부, 중앙은행 고위 공무원 및 주택건설은행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택금융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주택금융 역량 이전을 위해 상호협력 관계를 다져오고 있다.

국민은행은 2017년 3월 미얀마 KB마이크로파이낸스법인 설립 후 현재까지 13개 현지 영업점을 개설하여 미얀마 현지인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서민 주택자금 지원에 힘쓰고 있다.

앞으로도 현지 고객을 대상으로 디지털 뱅킹 서비스를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기업 금융 및 인프라금융 등으로 사업협력을 확



허인(오른쪽 두 번째) KB국민은행장이 4일 서울 여의도영업부를 방문한 우한조 미얀마 건설부 장관(가운데)이 지능형창구안내시스템(QS)을 직접 체험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제공 KB국민은행

대할 예정이다.  
또 국민은행은 2013년 이후 KB한국어학당 운영을 통해 현재까지 1000여 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이들의 한국계 기업 취업도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마을

센터, 송출근로자센터 및 건설부 도서관 건립 등 꾸준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서 대표적 사회공헌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해 오고 있다.

곽진산 기자 jinsan@

### 靑 홍보기획비서관 정구철 디지털소통센터장에 강정수



문재인 대통령은 4일 홍보기획비서관에 정구철(왼쪽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상임 감사로, 디지털소통센터장에 강정수(오른쪽) 미디어아트 대표를 임명했다.

정 선임 비서관은 1963년생으로 서울 한성고와 성균관대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했다. 한국기자협회 편집국장, 국정홍보처 영상홍보원장, 대통령비서실 국내언론비서관 등을 지낸 바 있다.

강 선임 센터장은 1971년생으로 용산고와 연세대 독문학과를 졸업했고 독일 베를린자유대 경제학 석사학위와 독일 비텐-헤어데케대 경제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어 연세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전문연구원과 경영대학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신동민 기자 lawsdm@

### 기사판

#### 서울시, 신임 기관장 3명 임명



서울시는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에 조성일(61·왼쪽 사진부터) 전 서울시 도시안전본부장을 임명한다고 4일 밝혔다. 또한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신임 원장에 김주명(56) 전 서울시 비서실장, 신임 이사장에 양병찬(55) 공주대 교수를 각각 임명한다. 세 신임 기관장의 임기는 7월 5일부터 3년이다.

#### ‘미래모자보건학자상’ 박선화 전임의

이대목동병원은 산부인과 박선화 전임의가 한국모자보건학회 춘계 연수강좌에서 ‘미래모자보건학자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박선화 전임의는 ‘임신성 당뇨의 선별검사로서의 75g 그리고 50g 경구포도당 부하검사의 공동 데이터 모델(CDM)을 활용한 주산기 예후에 대한 비교’라는 주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국내에는 아직 임신성 당뇨검사의 선별검사로 어떤 검사가 더 유용한지에 대한 대규모 연구가 없고, 선별검사가 병명마다 통일되지 않고 진단기준에도 차이가 있어 참석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변효선기자 hsbun@

###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여 공로” SK이노베이션, 전북지사 표창



SK이노베이션이 3일 열린 사회적경제 주간 기념식에서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북도지사 표창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전라북도·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공동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 전북도지사 표창을 받은 기업체는 SK이노베이션이 유일하다. 전북도청에서 개최된 이번 시상식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 SK이노베이션 임수길 홍보실장 등 2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SK이노베이션은 2013년부터 12개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해 300여 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했고, 전주비빔밥으로 유명한 사회적기업 천년누리푸드(사진)를 대표 성공 사례로 키워냈다. 또 전북 사회적경제 얼라이언스를 구축, 전라북도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점 등을 높게 평가받아 이번에 표창을 받게 됐다.

변효선 기자 hsbun@

### 효성그룹 ‘효성이 그린 지구’ 친환경 공모전 대상 ‘ 획기적 미세먼지 마스크’ 아이디어 낸 경북대팀

효성그룹이 실시한 ‘2019 효성이 그린(GREEN) 지구’ 공모전에서 ‘화학적 정화가 가능한 보급형 마스크’ 아이디어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효성그룹 마포 본사에서 3일 진행된 3회 효성이 그린 지구 공모전 시상식에서 경북대 섬유시스템공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심태박’ 팀(심영진·김태훈·박민호, 사진)의 아이디어가 대상을 받았다.

대상 수상작은 기존의 미세먼지 필터가 지니고 있던 작은 입자의 미세먼지를 걸러

내지 못하는 한계점을 창의적으로 개선해 미세먼지 필터에 여러 화학 용액이 혼합된 용액을 코팅하여 효율성을 높였다. 에어컨 등 다른 필터에도 적용 가능한 동시에 실험을 통해 사업성을 검증했다는 점도 심사위원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올해 처음 실시된 영상 부문 공모전에서는 참가자들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영상 구성이 심사위원들의 눈길을 끌었다. 아이디어 부문 대상 수상자에게는 500만 원의 상금과 효성그룹 입사 지원 시 가



점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효성은 친환경 경영 실현을 위해 ‘그린경영 비전(Vision) 2020’을 수립해 실천하는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와 친환경 소재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유진 기자 eugene@

### 한화토탈, 삼길포 앞바다서 우럭 치어·바지락 종패 방류

한화토탈은 4일 회사 임직원과 지역 주민 및 단체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서산 대산공장 인근 삼길포 앞바다에서 ‘치어 방류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한화토탈이 후원하고 지역 어촌계와 사회단체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총 2억 원 상당의 우럭 치어 25만 마리와 바지락 종패 방류가 이뤄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한화토탈 대산공장 인근 대산초등학교 학생들도 초대됐다. 치어 방류 체험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지역 사랑과 바다 가꾸기의 중요성을 심어 주는 현장교육을 병행, 행사의 의미를 더한 것이다.



한화토탈은 4일 임직원과 지역주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서산 삼길포 앞바다에서 우럭치어와 바지락 종패 방류 행사를 가졌다.

한화토탈은 지역 내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이 어업을 생계로 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민들과 상생협약을 맺고 2013년부터

서산 앞바다 어족자원 보호와 친환경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해 매년 ‘치어 방류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변효선기자 hsbun@

### 인사

-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급 승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사무국 부국장 조인철
- ◆방송통신위원회 ◇국장급 전보 △기획조정관 김동철 △방송정책국장 안현열 ◇과장급 전보 △홍보담당관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차중호 △통신시장조사과장 진성철 △방송기반총괄과장 김재철 △방송광고정책과장 박진희 △운영지원과장 문현석 △방송통신사무소장 김종영 △이용자정책총괄과장 반상권 ◇과장급 고용휴직·교육훈련 △아태전기통신협약체(APT) 고용휴직 신영규 △국의 교육훈련 과전 고낙준
- ◆국민권익위원회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황인선 △정렴조사평가과장 주경희 △복지보조급정신고센터장 김승태 △보호보상정책과장 박혜경 △주택건축민원과장 장태환 △도시수자원민원과장 정혜영 △환경문화심판과장 양동훈 △기업고충민원팀장 정영성

-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사장 백승달
- ◆한국가스안전공사 ◇1급 승진 △안전연구실장 김영규 ◇1급 전보 △감사실장 김두홍 △비상안전보건센터장 조광영 △산업가스안전기술지원센터장 박종근 △부산지역본부장 문성욱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엄석화 △경남지역본부장 강석영 ◇2급 승진 △혁신기획부장 김훈 △고압가스기준부장 심재호 ◇2급 전보 △혁신기획부장 이재용 △해의사업지원부장 김종문 △화학물질안전센터장 박용석 △석유화학안전과장 박원준 △안전기술부장 장성수 △서울지역본부 홍보고객부장 김상민 △대구경북지역본부 홍보고객부장(겸직) 권우철 △경북동부지사장 정성원 △인천지역본부 감사2부장 김명진 △전남동부지사장 서창주 △전남서부지사장 김훈 △울산지역본부 감사부장 동홍일 △경기지역본부 감사1부장 조상현 △경기북부지사장 이진환 △강원지역본부장 정무철 △충북북부지사장 김동욱 △충남지역본부 석유화학부장 배승균

- ◆인천항공사 ◇1급 △인재개발팀장 박진우 △여객사업팀장 김영국 ◇2급 △경영지원팀장 변규섭 △물류전략실장 김재덕 △물류사업팀장 김성태 △환경환경팀장 김성철 △재난안전실장 이승운 △감문운영팀장 신재홍 ◇3급 △글로벌마케팅팀장 직무대행 정원중
- ◆신한금융지주 △디지털전략팀장 김대성
- ◆신한은행 ◇본부장 신규선임 △WWM본부장 이재근 △대기업계열영업3본부장 강진태 ◇본부장 전보 △강서본부장 신현민
- ◆오렌지리미트 △NewLife추진실장(전무) 이영중 △NewLife추진팀 부사장(부장) 박재우
- ◆우리카드 ◇부사장 승진 △법인영업부 부장대우 이주원 △채권관리부 부장대우 박희준 ◇부사장 이동 △준법지원부 부장대우 이용욱
- ◆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부장(국장급) 박한준
- ◆일간투데이 △산업부장 최형호 △금융부장 허우영

### 부음

- ▲차영배(전 서울식품 이사) 씨 별세, 윤은숙 씨 남편상, 차재순(전 한국노바티스 부장)·재민(강남문화재단 사원) 씨 부친상 = 4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6일 오전 7시 30분. 02-3410-6902
- ▲이소영 씨 별세, 박원용(부경대 사학과 교수)·원빈(약수교회 담임목사)·경희(한국번역문화원 출판본부장)·경원 씨 모친상 = 4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2호실, 발인 6일 오전 7시 40분. 02-3010-2262
- ▲현영태 씨 별세, 현홍근(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 서울대치과병원 의료정보빅데이터 센터장)·현보(강사) 씨 부친상 = 4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6일 오전 9시. 02-2072-2018
- ▲홍성현 씨 별세, 홍인기(한국증권금융상무)·명희(에니히트니스 대표)·춘기(대전시노

- 동권의센터장) 씨 부친상 = 4일, 아산충무병원 장례식장 102호, 발인 6일 오전 7시. 041-541-4448
- ▲허성두 씨 별세, 이종순 씨 남편상, 허현승(연세대 경제학부 교수)·현준·수연·연주 씨 부친상 = 4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6일 오전 8시. 02-2227-7566
- ▲안병수 씨 별세, 안장원(중앙일보 건설부동산팀장)·형원 씨 부친상 = 4일, 대구 영남대병원 장례식장 205호, 발인 6일 오전 6시. 053-620-4235
- ▲이은수 씨 별세, 이해경(위성성형외과 마취과 과장)·혜진(성서중학교 교사)·정신(재미 간조사)·상일(남흥건축산업 대표) 씨 부친상, 이천수(전 교육부 차관) 씨 형님상, 권혁범(TV조선 심의실장)·정재우(AT&T 연구원) 씨 장인상 = 3일, 일산백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6일 오전 6시. 031-910-7444

허친국의 세계경제



전 충남대 무역학과 교수

# 무역전쟁 전황 보고: 한국의 비자발적 참전

미·중 간 진흙탕 싸움이 없었더라면 일본이 대(對)한국 수출 통제를 단행할 수 있었을까. 이제 한국도 전장(戰場)에 떠밀려 나온 셈이다. 정부가 그간 반일(反日)의식 고취에 경도(傾倒)되어 통상 갈등 개연성을 등한시했던 것 같아 걱정이다.

19세기 청나라와 영국 사이에 발발했던 아편전쟁에서 보듯이 무역, 또는 상업적 이해관계 충돌이 총칼이 동원되는 전쟁으로 이어지는 일이 종종 있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괄목할 변화는 여러 나라가 국가 간 상거래를 관장하는 공동된 규범을 따르며 '무역'과 '전쟁'이 같이 쓰이는 일이 없어진 것이다. 지난달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는 이런 다자주의적 국제경제 질서의 대표적 현재화(顯在化)였다.

그런데 이번 오사카 회의는 이런 질서가 그리 견고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한국·일본 간 열리지 않은 회담을 포함해 가능한 많은 회담(190개) 중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세기의 담판'과 같은 과장된 수사가 붙으며 관심거리였다. 보도에 따르면 두 정상은 5월 중단된 양국 간의 무역협정을 재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하던 약 3000억 달러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보류하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결과는 작년 11월 말 아르헨티나 G20 회담 때와 비슷한 양상이다. 작년 가을에도 양국이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수

단으로 대처하고 있었다. 당시에도 두 정상이 만난 후 미국은 관세 부과 확대를 연기하고, 중국은 미국 농산물 수입을 재개하며 갈등을 봉합했다. 하지만 휴전은 올해 5월 미국이 요구하는 국내 법 개정을 중국이 거부하면서 협상이 결렬되었다.

5월 이후 양국 간 관세 확대와 더불어 더 센 조치들이 동원되기 시작했다. 미국은 중국 거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화웨이 이를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집단으로 분류, 미국 기업들이 핵심 첨단 부품 판매를 차단하며 고사(枯死)를 초래할 수 있는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 중국도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언급하며 전의(戰意)를 보였다.

그런데 대중국 강경파들이 확전(擴戰)을 반기는 것과 달리, 무역전쟁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만만치 않다. 중국과 거래가 많은 기업, 산출물 수출에 타격을 입은 농민, 그리고 관세 인상에 따른 생필품 가격 인상을 우려하는 소비자들은 확전을 탐탁지 않게 보고 있다. 6월 28일 뉴욕타임스의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한 기사에 따르면 약 53% 대 43%로 일반인들은 미국과 중

국의 관세 인상이 미국에 부정적이라고 보고 있다. 트럼프가 공언하듯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중국이 아니라 미국 소비자들이 부담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급한 것으로 치면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 내년 대선을 치러야 하는 미국의 대통령이다. 그는 정책 결정에서 원칙을 강조하기보다 반대 급부를 우선시키는 단발적 거래(transaction) 관점에서 본다. 지난 대선 당시 "중국과의 무역 역조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공언한 트럼프 입장에서 내세울 성과가 절실하며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체제가 다른 중국은 선거에서 이겨야 존립하는 미국 정부에 비해 더 전략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도 그동안 경기 부양에 앞장섰던 지방정부들의 부채 증가 등 내부의 화근(禍根)을 키워왔다. 무역전쟁이 길어져 경제 사정이 악화하면 시진핑 국가주석의 처지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무역전쟁의 온도를 낮추고자 한다.

미국은 청나라에 강요되었던 불평등조약을 연상시키는 중국 국내법 개정 요구를 언급하지 않고,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며 유화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화답하듯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최근 중국에서 열린 하계 다보스회의에서 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 해소, 금융산업 개방 등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얼마 전까지 미국 정부는 화웨이가 심각한 안보 위협이어서 우방국에도 "화웨이와 미국 중 택일하라"는 식이어서 국내 기업들을 무척 곤혹스럽게 했기에 이런 태도 변화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간 미국이 무역장벽의 벽들을 쌓을 때마다 언급하던 '안보'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 과거 진중환 언행이 뒷받침하던 '팍스 아메리카나'의 약화도 심각한 부수적 피해가 될 것이다.

미·중 간 진흙탕 싸움이 없었더라면 일본이 대(對)한국 수출 통제를 단행할 수 있었을까. 이제 한국도 전장(戰場)에 떠밀려 나온 셈이다. 정부가 그간 반일(反日)의식 고취에 경도(傾倒)되어 통상 갈등 개연성을 등한시했던 것 같아 걱정이다.



이중호 칼럼

한국과학저술인협회장

## 식물이 만드는 플라스틱

으로 줄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물론 플라스틱이 천사의 물건만은 아니다. 화석연료에 기반을 두므로 한정된 화석원료를 고갈시키고, 제조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화학물질을 내뿜기도 한다. 토양에서 잘 분해되지 않으므로 환경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애물단지로 인식되기도 하는데 현재 같은 속도로 화석연료를 사용하면 채굴 가능 연한이 30~40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생명공학 분야에서의 괄목할 만한 기술 발달로, 화석연료가 모두 고갈된다고 해도 적어도 플라스틱만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미래에 도래할 플라스틱의 원료 부족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이다.

학자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기술의 하나로 화석연료가 아닌 광합성 식물, 즉 콩, 옥수수, 감자 등에서 플라스틱 원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이를 바이오테크놀로지(biotechnology)

의 일환인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또는 '플라스틱 식물'로 부른다. 바이오테크놀로지란 좁은 뜻에서 미생물이나 고등 동식물의 세포에서 유전자를 분리하고 시험관 안에서 재조합하여 형질이 다른 우수 품종을 생산해냄으로써 보다 가치 있는 생물을 생산하는 기술을 말한다. 한마디로 화석연료로 플라스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광합성하는 식물에서 플라스틱 원료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망은 대부분의 식물이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소형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해충이나 질병, 자외선을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화학물질을 만드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면 식물에서 플라스틱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화학물질을 생산할 수 있다.

식물 중에서 생존력이 강한 옥수수, 콩, 감자를 우선 대상으로 올려놓는데 이들 주성분이 탄수화물이다.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플라스틱 원료 중 하나인 폴리하이드록시 부틸라이드를 생산하는 미생물로부터 유전자를 분리하여 이를 적절한 식

물에 접목하여 생산케 하면 된다. 식물을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원리는 식물에 있는 탄수화물을 변화시키는 것이므로 원리상 매년 생산이 가능하며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다.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옥수수에서 추출한 당을 물에 탄 후 유기용매와 섞어 가열해, 실험실에서 3개의 물 분자를 떼어내 화학적으로 석유와 분자구조가 비슷한 물질을 개발했다. 옥수수의 당을 이용해 플라스틱이나 자동차의 연료를 만드는 길이 열린 것이다. 학자들은 식물을 이용하여 플라스틱은 물론 잉크, 디젤연료, 윤활유 등의 생산도 가능하다고 전망한다.

실제로 미국 중부 아이오와와 옥수수 농장은 플라스틱 공장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대한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생물공학 플라스틱 시장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이들로 생산되는 작물은 유전자 조작 농산물로 취급되지 않으며, 더불어 그동안의 공해 문제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장 콕토 명언  
"우리는 행운을 믿어야 한다. 안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이들의 성공을 설명할 수 있나?"

'내 귀는 소리껍질/바다 소리를 그리워한다'는 2행시 '귀'를 쓴 프랑스의 시인·소설가·극작가. 문학비평가, 배우, 연출가, 화가, 영화제작자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며 예술적 끼를 자랑했지만, 그는 시인이자 그의 시는 입체파 시의 전형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오늘이 그의 생일. 1889~1963.

☆ 고사성어 / 노익장(老益壯)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실력이 젊은이들을 능가하는 어르신을 일컫는다. 원전은 후한서(後漢書) 마원전(馬援傳). 마원이 대장군이 됐을 때 반란군을 진압하려 출정하려 하자 광무제가 만류했다. 마원이 "신의 나이 비록 62세이지만 아직도 감을 입고 말을 탈 수 있으니 늙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출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며 진군하자 황제가 감탄했다. 마원이 평소 애하던 말에서 유래했다. "대장부 뜻을 품었으면, 궁할수록 더욱 굳세고, 늙을수록 더욱 기백이 넘쳐야 한다 [丈夫爲志 窮當益堅 老當益壯]."

☆ 시사상식 / 에펠탑 효과(Eiffel Tower Effect)

처음에는 싫어하거나 무관심하지만 대상을 자주 접하다 보면 거부감이 사라지고 호감으로 변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파리에 에펠탑이 처음 들어설 당시 사람들은 흉물이라고 비난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호감도가 높아졌고 나중에는 매력적이라고 느끼게 되었다.

☆ 유머 / 주례사 비용  
예식장 소속 주례사가 "신부가 예쁜 만큼만 주세요"라고 하자 신랑이 만 원을 사례비로 건넸다. 주례는 어이가 없었지만 이미 약속을 했으니 주례를 서기로 했다. 주례가 신부의 면사포를 살짝 들춰본 뒤 신랑에게 다가가 귀엣말을 했다. "얼마 거슬러 줄까?"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삶연구소장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의료계에서도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로봇 등 신기술을 도입·활용하려는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이런 발전된 기술을 기반으로 전 세계는 문자, 이메일, 전화, 영상통화, 앱 등을 이용해 의사·환자 간 진료를 할 수 있는 원격 의료 도입에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원격 의료가 가장 빠르게 도입된 미국은 이미 원격 의료를 기반으로 한 수많은 기업들이 경쟁하고 있으며, 환자들은 의료비용 절감과 진료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도 원격 의료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정부 주도하에 원격 의료를 의료보험에 적용시켰다. 또 5G 이동통신 기반 원격

## 기자수첩



노은희 유통바이오부/selly215@

## 원격진료, 한국만 20년째 제자리걸음

의료를 위해 이동통신사와 의료기관이 협력 중이다. 중국 역시 전역에 159개의 온라인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자 처방전 발급과 처방약 배송,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 등 환자의 편의를 극대화하고 있다.

우리는 의료계 기득권의 저항에 부딪혀 20년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채 의미 없는 시범사업만 운영 중이다. 이에 대한상 의원은 국회를 방문해 "ICT시대 원격의료는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시행 중인 만큼 신산업 육성 및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서라

**이투데이**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쇄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논설실장 추창근	편집국장 김덕현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논설실 (02)799-2669	편집부 (02)799-2621	뉴스룸부 (02)799-2664	사진팀 (02)799-2697	대표전화 (02)799-2600
정치경제부 (02)799-2663	사회경제부 (02)799-2612	국제경제부 (02)799-6741	금융부 (02)799-2665	팩스 (02)799-1003
산업부 (02)799-2648	유통바이오부 (02)799-2641	중기IT부 (02)799-2646	자본시장부 (02)799-2647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이슈&인물

주목받는 '수소경제'

권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소 성장동력화, 여야 따로 없다”

“수소경제는 우리 경제의 블루오션으로, 수소경제를 통한 미래성장동력 마련에 있어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5차례 시리즈 토론회에서 도출된 내용을 정책으로 풀어내기 위해서는 발의된 수소경제법과 수소안전법의 통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소경제’가 미래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를 수소경제 진입의 분기점으로 정하고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충전소 설치, 수소시범도시 운영 등 지원에 나선다. 이 같은 계획이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력으로 이어지려면 제도와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수소경제 정책통’으로 꼽히는 권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수소경제 관련 법안 통과와 필요성과 함께 수소경제의 잠재성장력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수소경제를 추진하기 위해 출범할 ‘수소경제 추진위원회’도 수소경제법이 통과돼야 조직 구성이 가능하다”면서 “5월 30일에 있었던 ‘국회 수소충전소 착공식’에 여야가 릴 것 없이 많은 의원이 참석했고, 국회 수소경제포럼에도 여야 구분 없이 많은 의원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민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수소차 보조금 지원과 수소충전소 조기 확충을 위해 관련 법안의 통과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수소경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소차 보급 확산과 수소충전소 조기 확충이 시급하다”면서 “수소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올해 4000대로 규모가 아직 작다. 올해 추경과 2020년 예산 확충이 필요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환경부의 조기 폐차 사업이 수소차 구입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부의 ‘친환경자동차 지원제도’에 따르면 올해 수소차 보조금은 최대 3600만 원, 세금감면은 최대 660만 원까지 가능하다. 수소차 최신모델 기준으로 3000만 원 후반대면 수소차 구입이 가능하다.

‘수소차는 친환경적이지만 안전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권 의원은 “수소차 보급이 확산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소차와 수소충전소 이용에 앞서 안전 확보 조치”를 제대로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얼마 전 강릉의 수소탱크 폭발 사고와 노르웨이의 수소충전소 폭발사고로 인해 국민이 수소탱크와 수소충전소의 안전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강릉 수소탱크 폭발사고는 원인을 규명 중으로, 철저히 수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향후 사고의 재발을 막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전소 지자체와 솔루션 공급업체인 벨은 “미국과 한국에 있는 수소충전소 내 고압저장장치와는 다르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이를 언급하며 “노르웨이와 같은 사고가 한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수소충전소 안전확보장치 마련에 산업부와 더욱 긴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소경제 대중화 성패 여부는 차량 보급은 물론 충전 인프라 구축이 좌우한다. 전기차 보급과 함께 충전소 확대를 병행해야 하지만 지금 여건에선 기존 사업자가 인프라 확충에 나설 유인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소차가 많지 않다 보니 충전소를 운영해도 사업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져서다. 이에 권 의원은 수소충전소 초



‘수소경제 정책통’으로 꼽히는 권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소경제는 우리 경제의 블루오션”이라며 “수소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수소경제법과 수소안전법의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권철승 의원실

### 다섯 차례 시리즈 토론회 열어

수소경제·수소안전법 통과돼야  
수소차 보급·충전소 확충 물론  
수소경제추진위도 본격 가동

### 성장잠재력 큰 블루오션 시장

한국, 세계 최초 수소차 양산  
반도체·IT 잇는 미래 먹거리  
국제표준 주도, 시장 선점해야

기 설치비용과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수소충전소 확충을 위한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초기에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 수익이 나기 전까지 한 시적으로 국공유지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 현재 50%인 임대료 감면 범위를 75%로 상향하는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외 지역의 국공유지에 설치하는 경우 임대료의 감면 범위를 10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도권 내 공공기관 소유지에 설치하는 경우 임대료를 50% 범위 내에서 감감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 외 공공기관 소유지에 설치하는 경우는 75%의 범위 내에서 감감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신설했다”고 했다.

수소충전소 조기 확충을 위해서는 30억 원의 초기 설치비용과 연간 2억 원인 운영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다. “민간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충전소를 확충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권 의원은 최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정부와의 협력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그는 “6월 20일 수소엑스포에 참석해 수소차, 수소충전소 관련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며 현장의 애로와 요청을 들었다”며 “정부가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책이 추진되는 현장 기업들의 애로와 요청이 정부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수소경제포럼”을 통해 수소경제에 대한 법안 지원뿐 아니라 향후 ‘수소경제법’의 통과를 토대로 범정부 차원의 수소경제 추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수소경제 국제 표준 제정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수소경제의 잠재성장

력을 높이 평가한 미국, 유럽, 일본의 경우 수소경제 국제 표준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에 적극적이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소극적이어서 경쟁에 뒤처질 것이라 우려가 나온다.

그는 “수소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해 수소차, 로봇, 바이오 등 10대 분야의 혁신적 신기술에 대해 표준화 전략을 수립하고 국제표준화를 추진해 나가려 한다”면서 “수소사회를 향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외국 사례들을 국내에 제대로 소개하고, 전문가와 업계 그리고 정부부처 관계자와 함께 구체적인 사례를 논의해 정책에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는 일본의 가정용 연료전지 보급 현황과 독일의 수소충전소 90%가 기존 주유소에 설치된 상황, 프랑스의 2040년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계획 발표 등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며 “2013년 수소충전소 건립의 85%를 지원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AB 8’ 법 제정과 중국의 상용수소차 우선 개발 전략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이를 산업부 등과 함께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이전 수소경제다’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시리즈로 다섯 차례나 열어 누구보다 수소경제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주력한 권 의원은 최근에는 수소차에 이어 수소열차 토론회까지 진행했다. 수소경제는 현실성이 떨어져 낙관하기 어렵다는 우려에도 권 의원이 이처럼 발 벗고 나서서 수소 에너지원을 강조한 이유는 혁신적 잠재성장력 때문이다.

권 의원은 “과거 반도체 산업과 IT 인프라 구축이 오늘날 우리 경제의 먹거리가 되고 있다면, 수소경제는 10~20년 후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라면서 “수소경제는 에너지원을 기존 석탄과 석유에서 수소로 바꾸는 산업구조의 혁신적 변화”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소경제 세부 분야인 수소차, 수소기차, 수소선박, 수소항공기 산업 등은 아직 주도권을 잡은 국가가 없다”면서 “세계 최초로 수소차를 양산한 우리나라가 수소경제 세부산업을 선점한다면 수소경제가 향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주력산업으로까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및 활용 전 분야에 걸쳐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블루오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하니 기자 honey@

### 사설

## 최저임금 동결, 청와대가 적극 나서라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영계와 노동계가 다시 충돌하고 있다. 사용자 측은 올해 시급 8350원에서 4.2% 삭감된 8000원을, 근로자 측은 19.8%나 올린 1만 원으로의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양측의 협상용 숫자이지만 간극이 너무 크다.

3일 오후부터 4일 새벽까지 계속된 8, 9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전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박준식 위원장은 9일 열기로 한 10차 전원회의 때까지 수정안을 제출토록 노사 양측에 요구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기한은 8월 5일이다.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7월 중순까지는 임금액이 의결돼야 한다. 시간은 촉박한데 심각한 통풍이 불가피해 보인다.

최저임금은 작년 16.4%, 올해 10.9% 오르는 등 2년 동안 29.1%나 한꺼번에 인상돼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왔다. 취약계층 일자리가 감소해 고용참사가 빚어졌고, 임금부담을 견디지 못한 한계상황에 몰린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잇따랐다. 소득분배의 악화로 빈부격차는 더 벌어졌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실패는 여러 분석결과에서 확인됐다.

정부도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취약계층이 주로 종사하는 업종의 경영이 악화하고 고용도 줄었다는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이 경제와 고용시장에 큰 부담을 준다고 경고했다. 국제통화기

금(IMF)은 “최저임금이 2년간 30%나 오르면 어떤 경제도 감당할 수 없다”며, “내년 인상은 노동생산성 증가율인 3~4%보다 낮아야 한다”는 권고를 내놓았다.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의 최소한 동결 내지 인하를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을 주고 싶어도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전체의 30%를 넘는다”며,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가 요구하는 1만 원은 한국 경제가 감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또다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반복되면,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번에도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이 임금수준 결정의 캐스팅보트를 쥐게 될 것이다. 현실을 무시한 노동계 요구에 휘둘려선 안 된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지불능력의 한계에 부딪힌 시장의 수용성, 제자리걸음인 생산성 등을 반영한 합리적 판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인하까지는 어렵더라도 동결은 이뤄져야 한다.

최저임금 동결에 대해 정부·여당도 공감하고 있는 것 같다. 나아가 청와대가 적극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 노동계의 무리한 인상 요구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난 2년 최저임금 과속 인상에 따른 경제와 고용시장의 충격이 심각하다. 가리앉고 있는 경제현실과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노동계를 설득해 동결을 이끌어 내도록 해야 한다.

### 한 킷



### 올여름도 여전한 ‘개문냉방’

전국에 무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 명동의 상점들이 올해도 어김없이 출입문을 활짝 연 채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다. 매년 정부와 지자체가 개문냉방 영업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계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가정용 전기와 달리 상업용은 누진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개문냉방 억제를 위해선 단속 등 행정적 규제가 아니라 요금제 개편으로 개문냉방을 할 유인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누진제로 개문냉방을 하는 점포에 불필요한 전력 낭비로 인한 패널티를 줘야 한다는 논리다. 신태현 기자 holijak@

아침에 만나는  
이투데이  
경제가 더  
가까워집니다



SAMSUNG

“신혼에 딱 맞는 핑크빛 키친,  
핑크빛 냉장고 비스포크”



BESPOKE

1도어x3

Cotta White1 +  
Glam Pink2

가구를 맞추듯  
가전을 맞추다 **BESPOKE**

